



#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5호 (2014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5호 (2014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9 September 2014

### ① 주차\_09.01-09.07

1. 대남 .....	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3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9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23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25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② 주차\_09.08-09.14

1. 대남 .....	2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32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36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39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4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③ 주차\_09.15-09.21

1. 대남 .....	4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50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54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57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59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④ 주차\_09.22-09.28

1. 대남 .....	6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69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74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77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79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⑤ 주차\_09.29-09.30

1. 대남 .....	8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86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89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90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9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Contents

## 10 October 2014

### ① 주차\_10.01-10.05

1. 대남 .....	9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00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03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06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08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② 주차\_10.06-10.12

1. 대남 .....	11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16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2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24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2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③ 주차\_10.13-10.19

1. 대남 .....	13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34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인쇄: 2014년 10월 발행: 2014년 10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에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3. 대내 정치 .....	139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44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46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4 주차 10.20-10.26

1. 대남 .....	15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55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58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62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66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5 주차 10.27-10.31

1. 대남 .....	17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74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8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83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85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9월 일지 / 188

■ 10월 일지 / 190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01-09.07

9월

1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자강도 용림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9.1)
- 北, 응원단 파견 문제관련 연일 비난(9.1, 9.2)
- 北, UFG 끝난 후에도 지속 비난(9.2~9.4, 9.7)
- 北, AG선수단 11일부터 6차례 걸쳐 서해직항로로 운송(9.2)
- 北, 국가인권위원회의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계획 관련 지속 비난(9.3, 9.5, 9.7)
- 北, 월북 南주민 11일 판문점 통해 인도(9.5)
- 北, 추석 앞두고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로 발사(9.6)
- 北 조평통 담화, 남북관계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9.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규탄 관련 日에 과거청산 촉구(9.1)
- 北 강석주 곧 유럽 방문 예정, 미·일과 접촉가능성 주목(9.2)
- 北, ‘사드’ 체계 南 배치 비난(9.2)
- 北 군축연구소 대변인 담화, 주한미군이 평화 위협(9.5)
- 北, 억류 미국인 토드 밀러씨 재판 14일 예고(9.7)

3. 대내 정치

- 北, 10년 만에 건축가 대회 개최(9.3)
- 北 김정은 부부,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9.4)
- 北,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 개최, 김정은 노작 발표(9.5)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 발표(9.5)

4. 경제

- 특이사항 없음

5. 사회

- 특이사항 없음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 北 “월북 南주민 11일 판문점 통해 인도”(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5일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을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씨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남측에 있는 부인과 자식을 데려다 공화국에서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설득해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 北 조평통 “주한미군 두고 남북관계 발전 생각할 수 없어”(9/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7일 미군의 남한 주둔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 관계 발전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어 “우리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한데 대해 ‘평양점령’과 ‘북핵선제타격’을 노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 군사연습 강행으로 응원단 파견을 파탄시킨 배후조종자도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 조선신보, 北 응원단 파견 문제, 南이 아량 보여야(9/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미녀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참으로 유감이다”고 아쉬움을 표현함.
- 이어 북한이 지난달 20일부터 인천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에서 남측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통지했지만, 남측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하며 조선신보는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사절”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측은 아량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南, 대화 원하면 ‘UFG 연습’부터 사죄해야”(9/2,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2일 남북대화가 성사되려면 남측이 최근 진행된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이 UFG 훈련이 끝나자마자 2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 남북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며 “남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UFG 연습으로 북남관계를 악화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대남매체 “고위급 접촉설은 파렴치한 술책”(9/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9월 대화설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나자마자 남한 정부가 ‘9월 대화설’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그들이 내돌리는 ‘고위급 접촉설’이요, ‘9월 대화설’이요 하는 것들은 미제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 분위기를 망쳐버린 책임을 회피하고 그 누구에게 전가해보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 대남매체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9/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북남관계 개선의 시금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에서 ‘대화’설이 계속 올려나오지만 지금은 남측이 책임적이고 성실한 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금강산 관광은 현시기 북남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 관광은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 재개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이처럼 쉬운 일을 뒷전에 밀어놓고 다른 문제를 내세워 대화와 협력을 운운한다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5·24 조치와 같은 무거운 빚장을 질러놓고 새 통로를 만들자는 남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관계개선의 지름길인 금강산 관광재개에 계속 차단봉을 내리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자강도 용림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9/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220여km 내외로 판단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발사체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km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또 “발사체의 궤적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신형 전술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한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北, 추석 앞두고 단거리 발사체 3발 또 동해로 발사(9/6, 연합뉴스)**

- 북한이 추석을 앞둔 6일 오전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북한이 사거리 210~220여km인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4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은 기존 전술미사일인 ‘KN-02’(최대사거리 170여km 추정)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 전술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 잇따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가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AG선수단 11일부터 6차례 걸쳐 서해직항로로 운송”(9/2, 연합뉴스)**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2일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올림픽 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권경상 인천AG조직위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다”며 “(북측은) 9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측 항공기 편으로 평양-인천간 서해항로를 통해 선수단을 운송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이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11일에 축구·조정 선수단과 임원 등 94명이 인천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과 선수단 등 87명이 들어오고 19일(33명), 22일(41명), 28일(7명) 등에 걸쳐 총 262명이 평양-인천 직항로를 이용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들 북한 선수단은 28일과 다음 달 5일 등 두 차례에 나눠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북한 장애인AG 사상 첫 참가…인천에 선수단 파견(9/3, 연합뉴스)**

- 북한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서와 선수 명단을 지난 2일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대표 선수 9명의 명단을 APC에 보냈으며 북한이 임원 등 총 3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예상함.
- 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한층 힘을 얻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체육인, 인천AG에 기대감…통일열기 다시 한번 (9/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체육인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체육교류를 통한 민족화해를 강조했다고 소개함.
-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장을 맡았던 체육성 체육기술품목의 방문일(54) 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에서 남으로 것처럼 큰 규모의 대표단이 방문한 것은 조국이 분단된 이래 있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회상하며 “체육을 통해 6·15통일시대에 마련된 그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한 핏줄이 만나서 교류를 깊이 한다면 북남관계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통일의 기운도 고조될 것”이라고 말함.

- AG 北 응원단 불참 관련 ‘이번 사태로 하여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의 열기를 다시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재차 책임을 전가하며 ‘남측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라고 주장(9.1, 중앙통신·노동신문; 9.2중앙방송)
- 남한의 韓美 합동군사연습 실시는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평화와 통일위업 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근원”이라며 “북침전쟁연습 행동을 끝장내기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9.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北,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철회’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8.29, 통일부 대변인)’에 대해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고 신성한 체육문화교류마저 차단한 동족대결책동 합리화”라고 비난 (9.3,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北 인권문제 제기(北 인권사무소 설치결정 등)’를 “대결소동을 합리화하며 불순한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흥계”라고 비난(9.3, 평양방송)
- ‘UFG 연습은 북침핵선제공격을 가상한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이라고 지속 비난(9.4, 평양방송)
- 우리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北 응원단은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에 불과) 관련 ‘괴뢰 군부패당의 정신교육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당국의 훼손질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괴뢰 패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9.5, 중앙통신)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3호(9.5)】 인권위원회의 ‘北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인권모략 광란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9.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관철 위한 군민궐기모임, 9.5 원산에서 박정남(강원도黨 책임비서)·김정관(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가한 가운데 개최(9.6, 중앙방송)
- 대통령의 對北 발언(9.2,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에 대해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모면”이라며 “북침 핵전쟁연습 중단 및 남북합의 이행 결단”을 주장(9.6, 중앙통신·민주조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계획 관련 재차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치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의 절정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위협(9.7,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언

#### ● 北 군축연구소 “주한미군이 평화 위협…유엔 주목해야”(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5일 미군의 한국 주둔 69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과 그 주역인 미군에 대해 주변 나라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계가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남측에 주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언급하며

“사드 남측 배치시도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남측이 다른 나라들의 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불러 일으키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 北,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규탄…日에 과거청산 촉구(9/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일 ‘간토 땅을 피로 물들인 일제의 조선인 살육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간토 대지진 직후 살해된 조선인이 2만3천명에 달한다며 이 사건은 “그 목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본 반동정부의 주도세밀한 계획 밑에 조작된 야만적인 조선인 집단학살사건,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 대살육만행”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도 1일 평양 중앙계급교양관 강사들을 출연시켜 간토 대지진 당시 일제의 조선인 학살 만행을 규탄했으며 리영란 강사는 “일본은 40여년간 조선을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인적,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오늘까지도 그 청산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 北 통신, 日 정부에 조선학교 재정지원 거둬 촉구(9/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일 ‘총련말살책동의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조선침략범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도 마땅히 조선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조일(북일)우호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일본 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총련에 대해 노골적인 말살 기도를 표방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며 “일본은 또 조선민족에게 죄 되는 일을 감행하면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 北, ‘사드’ 체계 南 배치 비난…“한반도 정세 위협”(9/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그동안 남한에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려고 압박을 해왔다고 미국이 사드체계를 남한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조사도 진행했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이 미사일방어 체계를 합리화하려고 북한의 위협설을 만들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전부터 남조선에 전개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사드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언급함.

## 다. 회담 관련

### ● 北 강석주 곧 유럽 방문…美·日과 접촉가능성 주목(9/4, 연합뉴스)

-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핵·대미외교를 포함한 북한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약 10일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9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외교위원장과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이번 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방문국 정당과의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강석주의 급(級)을 볼 때, 또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과 이달 하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모종의 임무를 갖고 강석주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강석주의 스위스 방문 시기(11~13일)에는 일본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 수장도 남북 일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10일)차 제네바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북일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9/5, 연합뉴스)

- IAEA는 4일 발표한 영변 핵시설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흑연 원자로의 가동을 보여주는 수증기와 냉각수의 배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이어 북한 핵개발 계획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영변의 상황을 계속 감시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또 영변 핵 단지 여러 곳에서 보수작업과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됐다고 “이런 활동의 목적을 위성 영상만으로는 확실히 알 순 없지만, 핵보유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EU 집행위, 北 강석주 만날 계획 없다”(9/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는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라. 대미국

● 北 억류 미국인들 “美정부, 석방에 적극 나서야”(9/1, CNN)

- 미국 CNN 방송이 1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의 인터뷰를 방영함.
- 북측의 허용 아래 이뤄진 미국 CNN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억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함.
- CNN의 월 리플리 기자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에 연락을 받고 어딘가로 이동했다”며 “처음에는 고위 당국자와 만날 기회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야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재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인터뷰가 성사된 동기를 해석함.

● 北, 억류 미국인 토드 밀러씨 재판 14일 예고(9/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억류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을 9월14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이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을 예고한 것은 미국에 특사 파견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며 쟀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CNN에 출연,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세 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사 파견 등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 “조선총련 의장 오늘 방북 위해 출국”(9/5, 교도통신)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조선총련 부의장, 조선대학 학장과 함께 5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허 의장은 6일 평양으로 들어간 뒤 9일 북한 건국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출국 직전 허 의장은 북일관계에 대해 “스톡홀름 합의를 무겁게 봐야 한다”며 “서로 신뢰하며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 北日 납치문제 협상, 중대고비서 ‘진통’(9/6,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9월 2번째 주에 납치 문제 재조사의 1차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9월 하순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함.
- 최근 양측간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 측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북측은 새로운 정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좀 더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소개함.
- 또 북측은 조사결과 1차 통보의 대가로 북측 상업선박인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재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가운데,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조사결과 통보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 北, 조선총련 의장 환영연회…‘김정은 영도’ 강조(9/7, 노동신문)

- 북한은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7일 전함.
-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북한에 체류 중인 재일동포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양형섭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연회를 마련했다며 “김정은 동지의 품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대대손손 안겨 살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주장했으며 허종만 의장은 “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고 밝힘.

## 사. 대러시아

- **북-러, 불법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 추진(9/6, 러시아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서로 송환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소리 방송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으며 러시아 연방 이민국과 북한 측의 협의를 거쳐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노르웨이 화가, 내년 8월 평양서 미술교실(9/3, 아트뉴스페이퍼; 자유아시아방송)**
  - 노르웨이 화가 헨리 플라트씨가 최근 미술 전문지 '아트뉴스페이퍼'와 인터뷰를 통해 2명의 노르웨이화가가 내년 8월 평양에서 미술교실을 열며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해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북한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미술교실은 북한 학생과 외국의 미술학도들이 예술을 주제로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명칭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영문인 'DMZ'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쿠웨이트,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2억3천만원 기부(9/6, 미국의소리)**
  - 쿠웨이트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22만5천달러(약 2억3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가 WFP를 통해 대북사업을 지원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 9월 1일 귀국(9.1,중앙통신)
- 北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단장: 리명길 위원장), 9월 1일 프랑스와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9.1,중앙통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월 2일 러시아 연방평의회 1부위원장(알렉산드르 토르신)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2, 중앙통신)
- 러시아를 방문하였던 北 최고재판소 대표단(단장 : 박명철 소장), 9월 2일 귀환(9.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에서 흑인 소년 등 사망문제 관련 “미국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및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9.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9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제32차 보건상회의와 제67차 총회(방글라데시)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9.4,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럽동맹 아시아센터 대표단(단장 : 프레이저 캐머론 소장), 9월 6일 평양 도착(9.6, 평양방송·중앙방송·중앙통신)
- 일조(\*日北)우호 야마니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 야마니시TV 주식회사 사장), 9월 6일 평양 도착(9.6, 평양방송·중앙통신)
- 「총련」일본 대표단, 9월 6일 평양 출발(9.6, 중앙통신·평양방송)
- 영국 기업가협회 대표단(단장: 에브게니 레베제브), 9월 7일 평양 도착(9.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 北 김정은 부부,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9/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지난 3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바다 만풍가’, ‘조국찬가’, ‘근위부대 자랑’ 등을 부른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창조기풍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칭찬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새 작품으로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언급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음악회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이 함께했으며 김여정은 당비서 바로 뒤에 호명되었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장성택 숙청’ 이후 공식된 스웨덴 대사 임명(9/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12월 외교라인에서 장성택 세력을 줄줄이 소환하는 과정에서 공식이 된 스웨덴 주재 대사직에 강용덕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강용덕은 북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과거 경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전임 스웨덴 대사였던 박광철은 장성택의 외무성 라인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작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연합뉴스가 덧붙임.

## 다. 공식 행사

- 北, 10년 만에 교육일꾼대회 연다…교육개혁 주목(9/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마련된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교육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교육 관련 논문들을 소개함.
  - 북한에서 전국교육일꾼대회가 열리는 것은 김정일 시대인 2004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한 데 이어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교육 방법에도 변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北, 10년 만에 건축가 대회…“건설 대변영기 열자”(9/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표자회가 3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회의에서 보고자로 나선 심영학 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짧은 기간에 은하과학자거리, 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등이 완공됐다며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워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나가자”고 호소함.
  - 대표자회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 최영건 내각 부총리,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강영수 도시경영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등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이달 2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올해 두 번째(9/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를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에서 노동당 비서로 자리를 옮기고 당시 인민무력부장 직책으로 국방위 위원에 올랐던 장정남이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인선 작업이 예상된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교육혁명으로 지식경제시대 인재 육성해야”(9/6, 노동신문)**
  - 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빛내이자’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노작에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렸으며 특히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실천형 인재 양성하고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해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 도·시·군의 관계기관이 해당 지역의 대학과 각급 학교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사례를 들며 기존의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고 전문학교들을 대학에 통합해 인재의 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밝힘.
  - 이 대회에는 최룡해 당비서, 김용진·리무영 내각 부총리와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北, 정권수립 66주년 즈음 청진사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 열려 (9/6, 조선중앙통신)**
  -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이 9월 6일 김영남(제막사)·박봉주·현영철 및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제막식에서는 김정은 당 제1비서 및 당·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등 명의의 꽃바구니 진정되었다고 통신은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교육자대회 앞두고 연일 ‘교수방법 개선’ 강조(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여러 학교의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교수방법은 교육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며 교수방법 개선이 “교육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함.
- 신문은 2일에도 함경남도 함흥시 회양구역 회양고급중학교 김금숙 교사를 소개하며 그가 “학생들이 교사의 강의에 흥미를 갖고 끌려들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교수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으며 1일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쟁쟁한 실력가로 인정받는 비결은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한 우수한 교육을 받은 데 있다”며 이 대학의 교육성과를 부각함.

● 北 “기회주의·평화주의는 절대금물”…체제 결속 강조(9/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체제에 충성하고 ‘제국주의’에는 저항하는 ‘계급적 원칙’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며 타협적인 태도를 경계함.
- 신문은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계급적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급적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책동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며 “혁명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혁명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하며 계급적 원칙을 좌우명으로 심장에 간직해야 한다”고 밝힘.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반미 대결의식을 고취함.

-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 앞서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교육지원 전시회 개막식, 9월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1, 중앙통신·중앙방송)
- 해산청년역, 김일성 父子 모자이크 벽화(백두산에 오르시어) 건립(9.1, 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한 새 우표들(소형전지 2종, 묶음전지 1종) 발행(9.1, 중앙통신)
- 北, 정권 수립일(공화국창건일, 9.9절)기념 축구경기(8.20~9.9) 진행 소식 보도(9.1, 중앙통신)
- 김정은 당 제1비서, 9월 1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을 통해 10월8일공장 건설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9.2, 중앙방송)
- 박봉주, 최태복, 김용진(내각 부총리), 한광복(당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9월 2일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9.2,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가극예술에 대하여) 발표('74.9) 40주년 기념보고회, 9월 3일 평양대극장에서 박춘남(문화상)·안동춘(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기념보고)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3,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에 선물 전달(9.5,중앙방송)
- 北, 김세륜(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김양점(인민군 장령)·리태남(평안남도 당위 제2비서) 등 11명의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9.5,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발표('08.9.5) 6주년을 맞아 저작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 불패의 강성국가 건설의 역사를 창조하며 백전백승을 떨쳐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고무적 기치'라고 강조(9.5,중앙통신·노동신문)
- 제54차 전국 노동자 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공연 '무궁번영하라 백두산 대국이며', 9월 7일 최룡해(黨 비서)·현상주(직총 위원장)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중앙노동자 회관에서 진행(9.7,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40호(9.1),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수여(9.7,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北에도 햄버거·BMW 인기, 민간경제 확산(9/2, 파이낸셜타임스)
  -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값비싼 햄버거와 외제차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등 민간경제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평양 르포 기사를 통해 2일 보도함.

-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의 패스트푸드바에서는 햄버거 1개가 북한돈 1만원(약 76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입장료는 2만원으로 수백 명의 인파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비싼 정가를 다 내고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시설은 북한에서도 민간경제가 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FT는 분석함.
- 소매가가 200달러부터 시작하는 휴대전화도 북한에서 일상화되었으며 일본차와 폴크스바겐, 벤츠 등도 널리 보급돼 있었다고 먼디 특파원은 소개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 北 노동자들, 중동서 술 몰래 만들어 팔다 적발(9/3, 걸프타임스; 9/4, 미국의소리)

- 북한 노동자들이 술 유통이 금지된 중동 지역에서 몰래 술을 만들어 팔다가 잇따라 적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일 전함.
- 카타르에서 발행되는 신문 ‘걸프타임스’는 북한 남성 2명이 허가없이 술을 만들어 현지와 제3국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으며 이들 외에도 또다른 북한 남성 1명이 지난 2일 카타르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북한으로 추방된다고 전함.

### ● 北 고려항공 탑승권 인터넷 구매 가능(9/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인터넷 여행사 데스티니아가 지금까지 인터넷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고려항공 노선들의 항공권을 판매하며 평양과 중국 선양,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노선의 전자항공권을 취급한다고 밝힘.
- 평양~선양 노선 탑승권은 왕복 365유로(약 48만3천원),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405유로(약 53만6천원)부터 시작하며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가 독점하던 평양~베이징 노선의 항공권도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며 이 구간의 왕복 항공권은 465유로(약 61만5천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함.

- 北 “가을걷이 준비 빈틈없이” 연일 독려(9.1, 노동신문)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철정광 생산(101% 수행) 및 평양양말공장의 양말 생산(112.8% 수행) 등 여러 단위의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9.2,중앙통신)
- 새기술 무역교류사의 새로운 ‘천연나노 물소독제’ 연구·개발 선전(9.2,중앙통신)
- 제9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9월 16일~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예정 및 “나라들 사이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9.6,중앙통신)

- 평양 등 각지에서 “새 품종 잔디밭들에 대한 가을철 비배관리(죽은 잔디 폐기 및 살균 소독 등) 한창” 보도(9.6,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해주시 제2인민병원 등 각지 보건소들에서 “새로운 고려의학치료방법들 도입(전기 침요법 등), 예방사업 성과” 선전(9.3, 중앙통신)
- 체육과학원 체육기자재연구소의 새 마라톤 신발(한 켤레 무게 139g) 선전(9.5,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08-09.14

9월

2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정권수립일 중앙보고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 강조(9.9)
- 北, 월북자 김모씨 신병 판문점 통해 인도(9.11)
- 北 AG선수단 방남 시작, 선발대 94명 인천 도착(9.11)
- 北, 5·24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9.13)

2. 핵문제 및 외교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중관계 이상설 불식(9.10)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9.11)
- 北, 日과 베이징서 일본인 납치 문제관련 극비접촉(9.11)
-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게 6년 노동교화형 선고(9.14)

3. 대내 정치

- 北, 정권수립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9.9)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독일 사회민주당(SPD) 국제위원장과 회담(9.10)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EU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회동(9.11)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교차관과 회동(9.12)

4. 경제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올 1~5월 北-EU 무역액 작년보다 14% 증가(9.8)
- 北, 유엔 기구 올해 작황조사 거부(9.12)

5. 사회

- 北, 평양주재 외국공관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9.9)
- 北,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 발표(9.13)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총리, 남북관계 개선 강조…“통일 새 국면 열 것”(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는 9일 열린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가로놓은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北 “고위급접촉보다 뼈라 살포 중단이 우선”(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입으로 열번 백번 북남 고위급접촉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나설 초보적인 체모라도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라며 “뼈라 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와 같은 동족대결 책동을 중지하면 북남 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지금 남조선 당국의 뼈라살포 행위는 그 규모와 도수에 있어서 일찍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최근에는 뼈라살포를 ‘풍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명명하고 그 집행을 포병을 비롯한 현지 군 무력을 동원하여 내놓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난함.
  - 담화는 “우리는 침략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험악한 상태에서 북남 고위급접촉을 재개하자고 한 남조선 당국의 불순한 요구를 북남 대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을 우롱하는 최대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단단히 계산하려고 버르고 있다”며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접촉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신문 “신뢰구축 타령 말고 대결정책부터 철회해야”(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대결 흥심을 가리기 위한 신뢰구축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는 법이라며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함.

- 남북 간 불신이 절정에 달한 현재 상황에서 ‘드레스덴선언’이나 ‘평화공원 조성’ 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북남 사이의 불신을 제거하려면 이것저것 자꾸 내들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북남합의를 이행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신문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각계의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왕청같은(영동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 北, 5·24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거듭 요구(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실천적인 조치로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를 스스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대결정책의 철회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의 신뢰와 대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대화를 해도 북남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해도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실질적으로 가시기 위한 회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 바. 남북 사회 관계

### ● 정부, 월북자 김모씨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9/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월북자 김모(52)씨의 신병을 11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도함.
- 정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함.

● **北선수단 방남 시작…정부, ‘돌발변수’ 관리 고심(9/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1진 94명이 11일 인천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방남과 아시안게임 참여가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돌발 변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선수단의 방남이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돌발 사건은 남북관계를 도리어 급랭시킬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수단 숙소와 경기장 등지에서 북한 선수단에 높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한편 보수·반북단체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선발대 94명 인천 도착(9/11, 연합뉴스)**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1진이 11일 오후 6시47분 고려항공 TU-204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서해 직항로를 거쳐 한국을 찾은 북한 선발대 94명은 장수명 조선올림픽위원회(NOC) 대표와 임원,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을 포함해 축구와 조정 선수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미리 대기하던 버스 3대에 올라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천시 구월동 선수촌에 도착, 선수촌 웰컴 센터에서 미리 지급받은 AD 카드를 등록했다고 뉴스는 전함.

- 주한미군 주둔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한 지향과 권리를 짓밟고 통일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주한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9.8,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설립 등 계획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발”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 지속(9.12,평양방송)
-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9.13)】 제2차 고위급접촉 제의(8.11)에 대해 ‘전단지 살포’를 시비하며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남북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9.13,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인천 아시안게임에 ‘北 응원단 파견철회 반복하면 환영(9.2)’ 등 발언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또다시 망쳐놓은 저들의 추악한 반통일적 죄악을 가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피해보려는 구차한 궤변’이라고 지속 왜곡 비난(9.13,평양방송)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4호(9.14), 국방부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9.15, 인천 월미도)’ 예정에 대해 ‘南 당국은 反北 대결광란극이 인천 AG와 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난(9.14,중앙통신·중앙방송)

- 대통령(신뢰의 통로부터 벗어나가야 함)과 당국자들의 '신뢰구축' 발언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며 “북남합의들을 이행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9.1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北, 억류 미국인 매튜 밀리에 6년 노동교화형(9/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함.

### 마. 대중국

-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북중우호 변화없다”(9/10, 교도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진행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말 북한의 ‘친중파’ 장성택 처형 이후 이상 징후를 보여온 북중관계에 대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통신은 또한 김 상임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외유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中 시진핑, 대북 축전서 양국 친선 ‘16자방침’ 생략(9/9, 조선중앙통신; 9/12,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9일 공개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해 북한의 정권 수립 66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친선관계의 기본 원칙을 담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이 ‘16자방침’은 북중 친선관계를 집약한 것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우호를 강조할 때 의례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왔으며 2007년을 제외하면 정권기념일 축전에서 이 문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바. 대일본**

● **김영남 “움직임 나올지 모른다”, 북일 관계에 기대 표명(9/9, 교도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8일 가네마루 야스노부(金丸康信) TV 야마나시(山梨) 사장 등 일본의 북한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일 관계에 관해 올해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北 “일에 통보할 납치 조사결과 충분”(9/10, 교도통신)**

-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협상의 북한측 당국자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시 병행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일본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송 대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소개하고 지난 7월4일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개시에 발맞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데 대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하나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1차 조사결과 통보에 맞춰 “일본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 아닌가”라며 제재의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고 전함.

● “북일, 베이징서 극비접촉…일본인 납북자 협의 난항”(9/11, 교도통신)

-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9월 6~7일 베이징을 방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극비 접촉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8월에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첫 번째 조사결과 보고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 측이 상응한 대가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며 북한 측은 특히 이번 접촉에서 납북자 조사 보고를 하는 대신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납북자 문제 진전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9/11, 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 9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식에 지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北, 몽골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양해문(9/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과학기술위원회와 몽골 교육과학부가 평양에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으며 조인식에 전경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장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몽골 대사가 참석했다고 전함.

-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단장: 후쿠야마 마사키 사장), 9월 8일 평양 도착(9.8,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시진핑(국가주석)·리커창(국무원 총리)·장더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9월 8일 김정은·김영남·박봉주에게 ‘北 정권 수립’ 66주년 축전(9.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푸틴 대통령, 9월 9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北 정권수립’ 66주년 축전에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협조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9.9,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극초음속 병기(AHW) 시험발사(美 알래스카 州, 8.25) 실패 관련 ‘미국이 군축의 막 뒤에서 별의별 대량살육무기 개발을 다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무력강화책동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세계 제패야망 실현의 흥심이 깔려있다’고 비난(9.10, 중앙통신)
- 美 보수층 내에서의 미군철수 주장 보고서와 견해 발표(美 육군전쟁대학부설 전략문제연구소, 기업연구소, 랜드연구소 등) 관련 ‘남조선 강점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조속히 철수하지 않다가는 유사시 전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9.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유럽동맹-아시아센터대표단, 9월 10일 귀국(9.10,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 대변인(존 커비) 발언(韓美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에 대해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강도적 야망’이라고 비난하며 ‘美 집권자들은 우리(北)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포가 커가고 있는데 대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위협(9.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단장 : 김창광 사장), 9월 11일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9.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단장 : 후쿠야마 마사키 사장)·北-日 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 야마나시TV(주) 사장)·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 대표단(단장: 박동호 위원장), 9월 11일 각각 귀국(9.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기업가 대표단 및 러시아 연방평의회 1부 의장과 일행·「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9월 12일 각각 귀국(9.1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러 우표수집전시회 폐막식, 9월 13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진행(9.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리준식 부학부장), 9월 13일 귀국(9.13, 중앙통신·평양방송)
- 美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북·미관계 언급(8.31, ‘북핵문제-북·미 대화’ 관련) 관련 ‘우리(北)의 핵은 결코 대화나 관계개선에 써먹을 거래수단이 아니다’며 미국의 ‘反北 정책포기’ 주장(9.14, 중앙통신·노동신문)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오른 다리 절던 北 김정은, 이번엔 왼쪽 ‘절룩’(9/9, 조선중앙TV; 9/11, 연합뉴스)**
  -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공개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는 지난 8월 말 김 제1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절며 일용품을 생산하는 ‘10월8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목발을 짚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는 않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뉴스는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강석주, 독일서 사민당 국제위원장 면담”(9/10, 조선중앙통신)**
  -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8일 닐스 안넨 독일 사회민주당(SPD) 국제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강석주 비서와 안넨 위원장의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노동당 대표단과 독일 주재 북한 대사가, 독일 측에서 연방의회 SPD그룹 대외정책조정자, SPD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본부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함.
- **北 리수용 외무상, 국제회의 참석차 이란 방문(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이란에서 열릴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궁석용 외무성 부상과 알리레자 가니마트푸르 북한 주재 이란 임시대리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비행장에서 리수용 일행을 전송했다고 전함.
- **“北 강석주, EU 인권특별대표와 회동”(9/12,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을 순방 중인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회동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이 자리에서 람브리니디스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람브리니디스 대표는 강 비서가 만난 유일한 EU 집행위 인사라고 RFA는 덧붙임.

● **北, 강석주 벨기에 방문 보도…EU인권대표 만남 언급없어(9/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강석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9일과 10일 벨기에를 방문했다”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외관계담당 부위원장, 유럽사회당 대외관계담당 부총서기 등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담화들에서는 조선과 유럽동맹(EU) 사이의 관계발전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강 비서가 유럽연합(EU)의 인권특별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통신 “강석주, 스위스서 기독교민주당 관계자와 회담”(9/14, 조선중앙통신)**

-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스위스 체류 기간 기독교민주당(CVP) 간부와 회담하고 고위인사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연방을 방문한 강석주 동지는 스위스 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서기 베아트리스 베르틀리 마이어한스와 회담을 했다”고 전하면서 강 비서가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교차관과 파스칼 쿠슈팽 전 스위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 담화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두 나라 당과 정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北 정권수립(9.9)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수립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9일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최태복·김기남·박도춘·김양건 당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현영철 인

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北, 정권수립 66주년...“김정은 중심으로 뭉치자”(9/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 따라 끝없이 강성변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씨 일가의 ‘업적’을 부각하며 “영도자(김정은)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담보”라고 강조함.

### ● 北 노동신문, 추수 독려...“나라 쌀독 가득 채우자”(9/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1면에 게재한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는 사설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촉구함.
- 간부와 농민, 정부 기관 등이 각각 추수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동농장 간부들에게 “위를 쳐다보며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기 단위의 농사 결속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타게 사색하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주문함.

### ● 北 “전력난 해결하자” 연일 독려...절전 운동도(9/11,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1일 ‘긴장한(부족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는 사설을 싣고 전력 생산을 독려함.
- 사설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어느 부분,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력 증산으로 추수철에 ‘알곡기지’를 점령하고 제철·제강소, 경공업 공장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당·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우간다공화국 대사에 ‘명경찰’ 임명(9.10,중앙통신)
- 선군정치 실시로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었다’며 ‘자주적인 선군정치 정당성’ 주장(9.12,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9.11,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통근버스 선물’, 9월 12일 안정수(黨 부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모임 진행(9.13,중앙방송)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9월 13일 ‘北 인권보고서’ 발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北) 인권문제를 악용하는 실정에서 우리의 인권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 이었다”고 ‘배경 및 입장’ 등 설명(9.13,중앙통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北, 수도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시작(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 대동강변에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미래과학자거리에는 500여세대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을 비롯한 공공 및 봉사건물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게 된다”고 소개함.

● **북한, 나선특구서 중국인 대상 낚시 관광상품 출시(9/12, 흑룡강 신문)**

- 북한이 지난 6~7일 나선특구와 연결된 유명 관광지인 비파도에서 제1회 나선-연지(延吉) 바다낚시 관광 행사를 개최했다고 흑룡강 신문이 보도함.
- 북한과 손잡고 이번 관광을 기획한 중국 측 관계자는 “앞으로 가족낚시 관광, 북-중 낚시대회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다. 경제 상황**

● **올 1~5월 北-EU 무역액 작년보다 14% 증가(9/8,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EU가 지난 1~5월 북한에 수출·수입한 물품은 1천402만유로(약 185억원)로 작년 동기 1천228만유로(약 162억원)보다 14.2%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러 기업인에 장기 복수비자 처음 발급(9/8, 인테르팍스통신)**

- 러시아 기업인들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극동개발부는 8일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 시베리아 옴스크에 본사를 둔) 토목건설회사 ‘모스토빅’ 직원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복수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북한이 외국인에게 이런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함.

● **중국 단둥, 위탁가공무역 개시…북한서 의류 생산(9/11, 경제참고보)**

- 북한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의류생산업체들이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시작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11일 보도함.
- 신문은 단둥 해관(세관)이 최근 위탁가공무역 업무를 취급한 뒤 처음으로 23만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과 부재료를 북한으로 통관시켰으며 원자재를 보낸 중국 업체는 1개월 뒤 완성된 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전함.
- 단둥 해관의 장다오후(張道虎) 관장은 “이 정책은 해관의 올해 중점개혁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내 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국내외의 시장과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유엔 기구 올해 작황조사 거부”(9/1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년 북한에서 해온 작황 조사가 올해 북측의 거부로 취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실게 버 WFP 대변인은 RFA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매년 곡물 수확기에 북한에서 진행하던 작황 조사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작황 조사는 못 하게 됐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함.

- 황해남도, 해주잔디연구소(잔디의 육종과 재배 등 관련 연구실·실험실 등) 건설 (9.14,중앙방송·노동신문)
- 평안북도 시·군들(신의주시·염주군 등)의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준비 성과(트렉터 4천여대 등 수리·정비 완료)’ 선전(9.14,중앙방송·노동신문)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인권보고서’ 발표…“인권대화 반대 안해”(9/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과 인권 보장 정책, 인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가 13일 발표됐다”고 밝히고 그 전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함.
- 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공화국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과 우리 인민의 인권향유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해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우리나라의 인권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함.
- 또 “공화국은 인권 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나라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제도전복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진정한 인권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13일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탈북자 협잡꾼들의 증언에 저들대로의 억측과 악감을 섞어 만들어낸 쓰레기 문서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외국공관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9/9, 이타르타스통신;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에 사전허가 없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이타르타스통신은 북한 당국이 외국기관의 와이파이망이 주변 다른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앞으로 평양 주재 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 차단 조치와 함께 최고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 마. 사회 동향

- 집 지어주고 햇사과도 선물...교수 ‘대접’하는 北(9/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정권수립 6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평양의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황해남도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첫물 사과’를 공급받았다고 8일 소개함
- 北 장애학생들,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서 내달 공연(9/9, 연합뉴스)
  - 영국 런던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두라’(DULA·www.dula.org.uk)는 9일 북한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음 달 24일과 27일 각각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음악, 무용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공연에 나설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11명은 대부분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로 나이는 11~20세로 이들은 아코디언, 가야금 등의 악기로 민요 ‘아리랑’,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음악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동화로 유명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도 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평양국제영화축전 17일 개막…“100여편 출품”(9/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평양에서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라며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세계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출품한 1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교육 관련 ‘노작’ 연일 띄우기(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2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5일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의 해설 기사와 김 제1위원장,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육 관련 일화들을 실음.
- 이어 김 제1위원장이 노작에서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목표에 대해 “조국과 인민, 후대에 대한 사랑을 지닌 원수님(김정은)만이 펼칠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전략”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이 목표에는 “인민 모두를 인재로 키워 하루빨리 경제강국, 문명국을 일떠세우려는 (김 제1위원장의) 불타는 애국 의지와 선견지명이 맥박치고 있다”고 치켜세움.

- 양경일 선수, 9월 8일 2014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9.8~ 우즈베키스탄) 남자 자유형 57kg급 금메달 획득(9.9,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4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토론회, 9월 11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9.11, 중앙통신·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15-09.21

9월

3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5·24조치 해제 촉구(9.15)
- 北국방위, 청와대에 ‘빠라살포’ 중단 직접 요구(9.15)
- 北, 인천상륙작전 행사 비난…“아시안게임 이념에 도전”(9.15)
- 김영훈 체육상 등 북한 선수단 본진 87명 인천 도착(9.16)
- 北경비정 1척 서해NLL 한때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9.19)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유엔총회 개막 맞춰 “안보리 개혁해야” 주장(9.17)
- 北,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9.17)
- 주한 中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 것…북중 정상관계 유지”(9.17)

3. 대내 정치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유럽순방 결과 보도(9.18)
- 북한 임원진 ‘스포츠 외교’ 활발(9.18)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 면담(9.19)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년조직 방만 질책…“조직생활 강화하라”(9.20)

4. 경제

- 北, 건설 시공 감독 강화…‘건설감독법’ 제정(9.16)
- 中 훈춘-北 나선 통행량 증가세…하루 1천대 육박(9.17)
- 북-중 신압록강대교, 10월 개통 예정(9.17)
- 北,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청사진 공개(9.20)

5. 사회

- 北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9.17)
- 北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2년 연속 감소(9.19)
- 北 김책공대, 교육용 안드로이드 미니PC 개발(9.19)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대화와 대결은 양립 불가”…5·24조치 해제 촉구(9/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에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중지부를 찍고 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 강조함.
  - 특히 신문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남측이 이 같은 “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국방위, 청와대에 ‘빼라살포’ 중단 직접 요구(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에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밝힘.
  - 북한 국방위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전통문에서 지난 13일 나온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 내용과 같이 우리측이 빼라 살포를 중단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 국방위 앞으로 보낸 대북전통문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함.
- 北 “내일 빼라 살포 南당국 대응 지켜볼 것”(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2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21일 반공화국 빼라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음을 보도함.
  - 통신은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는 청와대의 공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빼라 살포를 무조건 중단하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 통신은 또 “남조선 당국은 1차 고위급접촉에서 우리에게 체제상 특성 때문에 뼈라 살포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켰다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 진실 여부는 김규현 남측 수석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음을 덧붙임.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인천상륙작전 행사 비난…“아시안게임 이념에 도전”(9/15, 연합뉴스)**
  - 15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4일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비난하며 이 행사가 아시안게임과 남북관계에 미칠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함.
  - 신문은 또한 조평통이 “이번의 도발 광란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대화니, 신뢰구축이니 하는 것이 한갓 기만이고 위선이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의 유린자,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백히 고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덧붙임.
- **北 신문, 한미연합사단 편성 비난…“전쟁 도발 목적”(9/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전쟁 도발을 위한 연합사단 창설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남조선 연합사단 편성은 명백히 새 조선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한 무력 편성”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문제는 미국-남조선 연합사단의 작전 범위가 조선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의 기동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높이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경비정 1척 서해NLL 한때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낮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이어 합참은 19일 “북한 경비정이 오늘 낮 12시께 백령도 인근 서해 NLL을 0.5마일 침범했다”면서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6발을 가하자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 김영훈 체육상 등 북한 선수단 본진 87명 인천 도착(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이 16일 오후 6시 평양에서 출발하는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오후 7시22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전함.
- 뉴스는 11일 먼저 도착한 1진에 이어 들어온 선수단 본진은 총 87명으로 체육상을 맡은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 손광호 부위원장, 김명렬 선수단장, 역도와 사격, 체조 등의 선수단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며, 11일 입국한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로 박근혜정부 들어 남한을 찾은 북측 최고위급 간부라 덧붙임.

- 現 남북관계는 남한 군부의 ‘韓·美 군사적 결탁 및 UFG 연습 등 反北 전쟁연습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우는 결단’ 지속 주장(9.18,중앙방송)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애걸하는 망동’이라며 「전작권」 재연기는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쫓겨버린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극악무도한 반역적 추태’라고 비난(9.20,중앙통신)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빠른 시일내 北인권법 처리) 관련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발”이라며 ‘미국과 결탁하여 국제적 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는 동족대결책동’이라고 비난(9.20,중앙통신·민주조선)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北, 유엔총회 개막 맞춰 “안보리 개혁해야” 주장(9/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극소수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69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총회의 권능 강화를 촉구함.
- 신문은 특히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려면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유엔총회가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안보리 결의도 최종검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 나. 주요 매체 논평

#### ● 北신문 “美, 이란 핵협상서 양면전술…환상 버려야”(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속에 칼을 품은 미국의 걸발린 웃음’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양자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겉으로는 추파를 던지지만 실제로는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란은 속옷까지 벗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두둔함.

#### ● 北, 美 시리아 지역 공습은 “주권국가 붕괴 노린 것”(9/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반테러전의 간판 밑에 이 주권국가를 짓밟개버리기 위한 전략적 타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미국의 공습 확대 계획에 대해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는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테러라는 간판 밑에 주권국가들을 임의로 선택하고 임의의 시각에 들이치곤 하는 미국의 무지막지한 행위에 국제사회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는 것은 우연치 않다”고 덧붙임.

## 다. 회담 관련

### ● 北 강석주 유럽 순방 종료…“고위급 접촉 대부분 불발”(9/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지난 6일부터 열흘간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 방문했지만, 스위스를 제외한 3개국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지 못하고 주로 정당 관계자와 회동을 했다고 16일 보도함.
- 강 비서는 스위스에서 이브 로씨에 외무차관을 만났지만, 스위스 외무부가 이 회동은 “수교국 간 정례 정치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소한의 수준에 진행됐으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VOA는 전함.

## 라. 대미국

### ● 北,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9/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북한이 억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재판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부’(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근을 거의 매일 요청했지만, 대사관 측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6월 20일, 케네스 배 씨는 8월 11일 마지막으로 면담한 이후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밀러가 이미 교도소로 이송됐는지, 그가 배씨와 같은 시설에 수용됐는지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함.

### ● 北, ‘대통령급 美특사’ 보내야 케네스 배 석방 언급(9/18, 미국의소리)

-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가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이 지난해 6월 보낸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를 억류 중인 북한 당국이 배 씨에게 미국의 대통령급 인사가 방북해야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전함.
- 다만 배명희 씨는 “북한 당국이 아들에게 ‘대통령급’이라는 조건을 항상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이후 입장이 변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북한은 1년 전부터 아들에게 고위급 특사 방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고 VOA는 전함.

● 北 억류 미국인 밀러 판결내용 공개…“美가 시비증상”(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걸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 이든 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상보’를 발표하고 뒤늦게 밀러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함.
- 통신은 또한 상보가 “문제는 밀러의 범죄행위가 미 국무장관 케리를 비롯한 위성자들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거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히 ‘악의 나라’라며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것”이라며 “밀러의 범죄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 강조했음을 덧붙임.

마. 대중국

● 주한 中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것…북중 정상관계 유지”(9/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17일 “북한은 정상 국가로서 조속히 국제 사회의 범위 내에 유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추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중·북 간에는 줄곧 정상적인 양자 관계가 유지돼 왔고 이전에 양국 지도자간의 정상적 왕래가 있었다”면서 “아마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이어 추 대사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거듭 희망했음을 언급함.
- 한편,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대사의 김정은 방중 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서로) 우호적인 이웃국가다. 우리는 각층의 우호적인 교류왕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의) 구체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소식이 없다”고 대답했음을 덧붙임.

바. 대일본

● 北,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 소요”(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18일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전함.
- 뉴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특히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의 납북자’ 조사는 전체적으로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현지 점에서 이 단계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일본, 북한에 납치문제 조사단 파견 검토(9/20,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니혼게이지아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보도함.
-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관계 성청(省廳)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나 유엔 총회를 이용해 북한과 당국자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라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국가**

● **北, 프랑스와 개성城 공동발굴…전시회도 개최(9/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이 평양 민속공원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개성성 공동조사발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개성성 공동조사발굴 전시회 개막식에 룡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장, 엘리자베트 샤바늘 국립극동연구원 대표, 임마누엘 루소 북한 주재 프랑스 협력사무소 대표, 리취안화 프랑스 라파르즈사(社) 대표가 참석했다고 덧붙임.

- 리수용 北 외무상과 이란 외무상(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9월 14일 이란 외무성 청사에서 회담 진행(9.15,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요르단, 9월 15일 항공로에 관한 협정(베이징) 조인(9.16,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몽골 문자메통신사와 ‘협조와 교류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 토의 및 합의’(9.16,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쿠바 대사, 9월 16일 ‘北 정권수립일(9·9절)’ 관련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9.16,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9월 15일 아시아-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에서 연설 (9.17,중앙방송)

- 김영남, 9월 17일 ‘北 정권 수립’(9.9) 66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하단(단장 : 허종만 「총련」의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17,중앙통신)
-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강석주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당 비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 방문(9.17,중앙통신)
- 계춘영 인도 주재 北대사, 9월 12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9.17,중앙방송)
- 정영철 니제르(\*아프리카 중서부) 주재 北 대사, 9월 12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9.18,중앙방송·중앙통신)
- 운요호 사건(\*일본군함 운요호의 강화해협 불법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 사건) 발생 139주년을 맞아 ‘운요호 사건은 무력에 의한 일제의 조선침략의 서막’이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고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9.20,중앙방송·노동신문)
- 美 오바마 대통령의 ‘IS(이슬람국가) 격퇴 대책’ 정책 연설(9.10) 관련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러전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비판(9.21,중앙통신·노동신문)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청년조직 방만 질책…“조직생활 강화하라”(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 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고 전하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의 말단조직이 제 역할을 원만히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청년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음을 전함.
  - 방송은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부 청년이 언어예절과 인사예절, 공중도덕을 바로 지키지 않아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와 생활질서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청년동맹에서 도덕교양을 잘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책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어 방송은 사상교양과 관련해 “청년들은 언제나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강석주 유럽순방 결과 보도…“솔직한 의견교환”(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8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순방 결과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전함.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방문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강 비서가 지난 7일부터 16일 방문 국가의 정부·정당·경제계 고위 인사와 유럽의회 관계자를 만나 북한과의 관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또한 통신은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무차관, 엘마르 브록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등 강 비서가 만난 20여명을 모두 소개하며 명단에는 이미 보도된 인물에 더해 스위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국장이 새로 포함됐음을 전함.
  - 이어 “회담과 대화들에서는 조선과 유럽의 정치·경제 정세가 통보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며 많은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를 표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北 강석주, 몽골 방문…대통령 면담(9/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럽 순방에 이어 몽골을 방문한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19일 보도함.
  - 통신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양측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하며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몽골 정부와 인민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음을 전함.
  
- **북한 임원진 ‘스포츠 외교’ 활발(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장수명 북한 체육성 부상은 18일 오후 대회 본부호텔에서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51·쿠웨이트)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을 면담했다고 19일 전함.
  - 뉴스는 또 북한 선수단의 최고위급 인사인 김영훈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겸 체육상은 19일 저녁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이 주최한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의 공식 연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사상사업에서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공백이 생겨 잡생각이 침습하게 된다'며 '사상사업을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부단히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사상사업 강조(9.15,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보건대표단(단장 : 강하국 보건상), 9월 15일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제32차 보건상회의와 제67차 총회 참가 후 귀환(9.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9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 9월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저작들을 모은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출판(9.16, 중앙통신)
- 北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단장: 리명길 위원장), 9월 16일 프랑스와 몽골 방문후 귀환(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9월 17일 최덕신 생일 100주년에 즈음하여 애국열사릉에 있는 묘에 화환 진정(9.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출판보도부문 기자·언론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9월 17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제14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개막식, 9월 17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세계 구급처치의 날'(9.13)에 즈음한 청소년적십자 구급처치활동 소개모임, 9월 17일 평안남도 평성시두무고급중학교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전국 기상부문 및 해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총 주최), 9월 17일-18일 평양에서 기상수문·해양부문 과학자·기술자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9.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화학공업성·유원지총국 등) 정구경기, 9월 16일-18일 능라도에서 진행(9.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전달(9.20, 중앙통신)
- '조선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데서도 최고이고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에 있어서도 제일'이라며 '당의 결정지시에 따른 절대성과 무조건성 정신'을 선포하며 및 '창조정신과 투쟁기풍' 구현을 강조(9.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제4차 초급일꾼대회, 9.18~1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9.19,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원 최원숙 등)에게 감사 전달(9.20, 중앙방송)
- 「김정은 서한」에 제시된 과업 관철'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9월 21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최용해(黨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및 청년동맹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21, 중앙방송·중앙통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북한 관광총국장 “외국인 관광객 수 백배로 늘리고 싶다”(9/2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김도준 북한관광총국장이 20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증(비자) 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전함.
  - 통신은 또 김 관광총국장이 평양에 관광대학을 설립하고 지방 대학에 관광학부를 만드는 등 북한 당국이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음을 덧붙임.

### 나. 주요 조치

- **北, 건설 시공 감독 강화…‘건설감독법’ 제정(9/5, 민주조선; 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주조선이 9월 5일자 ‘법규 해설’ 코너에서 건설감독법의 내용을 소개했다고 16일 전함.
  - 민주조선 5일자에 따르면 건설감독법은 5개 장과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법은 “(국가가) 건설 시공 감독을 건설 현장에서 시공의 전 과정과 건설주(건설을 주문한 개인이나 기관), 시공주(시공을 하는 건설업체) 검사원들의 질 검사 활동을 빠짐없이 감시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에 면밀한 감독 의무를 부과한다고 민주조선은 설명함.

● **북한이 공개한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청사진(9/21, 연합뉴스)**

-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는 20일 오후 중국 다롄(大連)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북한 투자설명회에서 원산·통천·금강산지구 등 크게 3개 지구로 구성된 대규모 관광벨트의 개발 방안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북한 측은 원산-금강산지구의 관광 인프라 개발이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지역에 지난해 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리모델링 공사를 원산-금강산지구 개발의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꼽음.
- 또한 북한 측은 원산지구에 1만 2천명, 통천지구에 7천명, 금강산지구에 1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는 사업 이외에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전력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골프장, 카지노 등 위락시설에 대한 신축·확충 구상도 밝힘.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근로자 5명, UAE 공사현장서 사고사(9/17, 미국의소리)**

- 중동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명이 건설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밝힘.
- 또한 방송은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당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북한 수도건설사업소의 근로자로 이들의 시신이 16일(현지시각) 쿠웨이트에서 북한으로 가는 고려항공편으로 운구됐다고 소개함.

● **中 훈춘-北 나선 통행량 증가세...하루 1천대 육박(9/17, 연변일보)**

- 연변일보는 두만강 유역의 북·중간 최대 교역·관광 루트인 지린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 통상구의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함.
- 또 신문은 지난 10일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차량이 총 945대로, 해당 통상구가 문을 연 이래 1일 최다 차량 통관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10월 개통 예정(9/17, 중국신문사)

- 중국신문사는 다음 달 중순 단둥에서 열리는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의 내용과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신압록강대교가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며 북·중 무역에서 단둥의 중요성이 한층 두드러질 것”이라고 17일 전했다.

- 예성강발전소 건설 및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 성과 선전(9.15, 중앙방송)
- 강원도 철원군(버섯공장 규모 10배 이상 확장)과 양강도 백암군(남새온실 15동 건설) 등 각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전개” 선전(9.18, 중앙통신)
- 지난 2년간 922건설돌격대원들이 세포지구에서 ‘5만여 정보의 등판개간 완료 및 인공풀판 98%·자연풀판 77% 조성’ 등 “세포지구 전변 성과” 선전(9.21,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9/17, 연합뉴스; 민족통신)
  -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개처형제도’에 대해 17일 밝혔다.

- 통신은 박 원로참사가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음을 전함.
- 또한 통신은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이며 박 원로참사가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 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함.

## 마. 사회 동향

- **유니세프 “北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2년 연속 감소”(9/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9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VOA는 유엔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4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1천 명당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음을 언급함.
- **北 김책공대, 교육용 안드로이드 미니PC 개발(9/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미니 PC(mini PC)를 교육용으로 개발해 시범 운용 중이라고 19일 보도함.
  - 또 신문은 미니 PC는 TV와 연결해 안드로이드 OS에서 구동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TV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IT기기로 국내에서도 스마트TV 셋톱박스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매체 “북한은 인권중시 사회” 주장 글 연재(9/19~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9일부터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연재로 소개한다”라며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 사회”란 제목으로 매일 연재 글을 올림.
  - 특히 ‘노동권’을 언급하며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 데 대한 국가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의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고 주장함.
  -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자(생활보호대상자)를 우대하고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있다”고 주장함.

- 21일에는 북한의 '무료의무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 규범의 요구를 훨씬 능가해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힘.

- 北 평양광명정보기술사, “컴퓨터 백신 개발”...백신 ‘실리왓썬’ (9.19,노스코리아테크)
- 제12차 전국 태권도 기술혁신경기, 9.16~23 평성경기장에서 진행(9.19,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22-09.28

9월

4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전단 살포에 반발(9.22)
- 北 국방위 포함, 北 매체, 차대통령 유엔연설 연일 원색적 비난(9.2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유엔대표부 자성남 대사, 27일 ‘북미·남북 대화’ 가능성 없음 시사(9.28)
- 北 리수용 외무상,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핵은 자주권·생존권 문제 언급(9.28)
- 日, 유엔총회 계기로 북한에 납치문제 ‘압박’(9.24)

3. 대내 정치

- 장성택 후임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최룡해 임명(9.24)
- 北 매체, 다리 저는 김정은 영상 보여주며 “불편하신 몸” 언급(9.25)
- 北 최고인민회의, ‘중대발표’ 없이 ‘교육개혁에 총력’결의(9.26)

4. 경제

- 중국 관광업계 “북한 서비스·태도 달라졌다”(9.22)
- 北 중앙예술단, 지방 생산현장서 공연…중산 독려(9.23)
-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8개월째 통계상 ‘제로’(9.23)
- 北 8월 식량배급량 하루 250g…3년 만에 최저(9.24)

5. 사회

- “건강한 몸 만들자”…北에서도 ‘코어 운동’에 관심(9.22)
- 北, U-16 축구 선수들 금의환향에 축제 분위기(9.24)
- 남한 정착 탈북자, 체중 늘면서 당뇨 위험 커(9.25)
- ‘체육열풍’ 北, 스포츠 중계방송대회 개최(9.27)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전단 살포에 반발…“南, 대화 입에 올리지 마라”(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2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빠라살포 망동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음을 전함.
  - 통신은 이번 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고 “괴뢰 당국은 더 이상 대화요, 신뢰요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고위급 접촉 제안 등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
  
- **北 국방위, 차대통령 유엔연설 비난(9/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가 27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거론하며 “이번에 박근혜는 제 스스로 자신이 현대판 사대매국노이며 역적 중에 가장 악질적인 만고역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음을 보도함.
  - 통신은 또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 핵억제력의 사명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날강도 미제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며 박근혜와 같은 현대판 사대매국노들을 매장해버리는 데 있다”고 위협하며, “이번에 박근혜는 베를린 장벽 해체 25년을 거론하는 것으로 골수에 배어있는 흡수통일 야망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함.
  - 또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공식 매체의 28일 방송에서는 교육위원회와 조선직업총동맹 간부, 동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주민들이 출연하여 박 대통령을 ‘미국의 창녀’, ‘인간추물’, ‘천치’ 등 극히 거친 말로 비난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南, 관계개선 실천적 조치하면 대화의 문 열릴 것”(9/2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3일 ‘관계개선 의지는 실천으로 검증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와 신뢰를 말하기에 앞서 대화와 신뢰 조성을 가로막는 동족대결정책부터 철회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뼈라 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도 ‘북남대화의 빚장을 지른 장본인은 누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속에 없는 대화 타령을 하기 전에 북남관계 개선에 저해를 준 저들의 잘못에 대해 따져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때면 북남 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릴 것”이라고 23일 강조함.

● **北 매체, 남북 간 ‘북한인권대화’ 제의 맹비난(9/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뒤가 썩긴 자들의 뒷골방 쓸라닥질(헐뜯는 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대화는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물칠을 하려는 가소로운 푸념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매체는 이어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남측의 세월호 참사·윤일병 구타 사건 등을 언급, “오히려 인권문제가 심각히 논의돼야 할 곳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되는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강조함.

● **北 신문 “10·4 공동선언 존중없는 대화는 기만”(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자주통일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떠난 그 어떤 대화와 신뢰도 거짓이며 기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또 논평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공동 선언을 부정해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동선언 이행 여부는 남측이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거듭 주장함.

● **北, 朴 대통령 유엔 연설 사흘째 원색 비난(9/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대결에 미친 정치매춘부의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며 “박근혜 패당은 정면 대결을 선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논평은 핵 문제와 관련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전쟁도발 책동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핵 문제는 애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핵개발은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함.
-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행적과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을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거칠게 비난함.

- 신문은 철도성 직맹위원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작업반장 등의 글을 함께 싣고 박 대통령을 “동족을 비방하는 대결 미치광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며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 軍 “백령도 인근서 수거 무인기 잔해 北기종과 동일”(9/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국방부가 “백령도 서쪽 바다에서 지난 15일 수거된 소형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 3~4월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뉴스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항적 등 주요 정보는 수거 당시 동체가 심하게 굽혀 있었고 내부 비행조종 컴퓨터,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이 유실돼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북한 서해지역에서 발진 후 추락했거나(북한 내에서) 시험운용 중 추락해 조류에 의해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을 덧붙임.

## 마. 남북 경제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北,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南 당국자들은 대화와 신뢰를 말하기에 앞서 북침 합동군사연습과 뼈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軍의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기념행사’(9.24~26) 개최 예정 관련 ‘국제체육경기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친선의 이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북남관계 개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양국의 「저작권(전자저작권)」 전환시기 '2020년 이후 연기' 협의(9.6, 제2차 저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에 대해 “미국이 남조선 영구강점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억지”라며 ‘미군 철수’ 주장(9.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對北 빠라살포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민족·반통일적 대결장동’이며 우리 당국이 ‘비호 조장시킨 反北 심리모략전의 연장’이라고 “주모자·가담자들 단호한 징벌” 위협 지속(9.24, 중앙통신·민주조선)
- ‘전단 살포’ 관련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공화국에 대한 가장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너절한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군대의 보복타격은 예고없이 가해질 것’이라고 연일 위협 속에 우리 당국의 ‘분별있는 처신’ 주장(9.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낙동강지구 전투기념식(9.24~26)’ 진행 관련 ‘국제 체육경기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친선의 이념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北)를 자극하여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9.25, 평양방송)
- 北,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떠난 그 어떤 대화와 신뢰도 거짓’이라며 ‘南 당국이 진심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신뢰에 관심이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9.26,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국방첩」 정책국 대변인 담화(9.27),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9.24, 북핵·인권문제 등)에 대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첫 번째 화근”이라고 신랄히 비난 및 ‘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위협(9.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국방부·외교부장관 발언(북핵·미사일은 한반도·亞-태지역과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 요인, 북한 인권대화 제의 등)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현실왜곡’이라고 주장 및 ‘핵억제력 강화’ 역설(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핵억제력이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반공화국 대결에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 자멸을 촉진하는 비참한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연일 실명거론 비난(9.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북 리수용 “자주권·생존권 위협 제거되면 핵문제 풀릴 것”(9/28,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외무상은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 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리 외무상은 “인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함
- 지난 22일 ‘북한인권고위급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참석에 반대한 것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함.
-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리 외무상은 “냉전이 종식된 지 4분의 1 세기가 돼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함.
- 또 북한은 지난 1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제안했는데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3, 4월과 8월에 강행됐다고 비난하면서, 군사훈련의 중단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으나 외면당했다고 말함.
- 그는 연설에서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는 원로원이 아니다”는 말로 미국 주도의 안보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며 “상임 이사국들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 38노스 “北 핵·미사일 연구진 폭넓은 세대교체”(9/22, 38노스; 9/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8노스’가 22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음을 23일 보도함.

- 뉴스는 '노스 코리아 리더십 위치'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이 22일 38노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난 7월 초 숨진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비서직을 내놓은 2010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연구진 내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전병호 전 비서의 업무를 박도춘 비서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물려받았다고 설명했음을 보도함.
- 또한 기고문이 북한 핵·미사일 연구진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부상한 핵심 인물로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과 당 기계공업부의 홍승무, 홍영철 부부장 등 3명을 꼽았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핵억제력은 인권수호 담보…더욱 강화할 것”(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평화파괴자, 인권유린자들의 뉘etur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적대 세력들의 침략을 짓부수는 조선반도 평화 수호의 보검이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 수호의 담보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우리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침략을 격파분쇄하는 자주권 수호의 군사적 담보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보검”이라며 “윤병세 역도가 우리의 핵억제력과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모순’을 떠들어댄 것도 가관”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북한 유엔대사 “당분간 ‘북미·남북 대화’ 가능성 없다”(9/28,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 자성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당분간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특히 자 대사는 15년만에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한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포함한 북한측 인사가 미국측과 만날 수도, 만날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밝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27일 오후 리 외무상과 함께 유엔본부로 들어선 자성남 대사는 연합뉴스와 만나 ‘리 외무상이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났느냐’는 물음에 “만나지 못했다”고 말함.
- 자 대사는 ‘리 외무상이 미국측과의 만남을 시도했느냐’며 설명을 요구하자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관한 회의(북한 인권회의를 지칭)에 참석을 희망했으나 거절됐다”고 설명함.
- 이후 미국측과의 추가 접촉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선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한 미국측의 태도에 비춰 미국이 우리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후 더 이상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시도할 계획도 없다”고 말함.

- 이어 자 대사는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과의 접촉은 없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함.
-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없다”면서 리 외무상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출국한다고 덧붙임.
- 아울러 자 대사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미국측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측과 만날 수 있느냐’,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되묻자 “없다고 본다”면서 “대화 재개 등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자 대사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덧붙임.

## 라. 대미국

### ● 북한 수감 미국인 매튜 밀러, 형 선고후 모습 첫 포착(9/25, AP통신)

- AP통신의 영상서비스채널(APTN)은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위해 북한 교도관과 함께 평양의 한 호텔을 찾은 밀러와 만나 짧게 얘기를 나눴다며 그의 모습을 25일 보도함.
- 통신은 밀러가 노동교화소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질문에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 이는 대부분 땅을 파고 다니는 등 농사일”이라고 답했다며 “그 외에는 그저 격리돼 있으며 아무와도 접촉이 없다”, “하지만 현재 건강은 좋으며, 다친 데도 아픈 데도 없다”라고 말했음을 전함.
- 또 미셸 오바마 영부인, 존 케리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을 향해 직접 쓴 탄원서를 가족에 보내는 편지 안에 동봉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마. 대중국

### ● 北, 불량식품 경제하며 中 ‘멜라민 파동’ 거론(9/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오늘의 세계’ 코너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불량식품들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것(불량식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치명적인 후과(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미 때가 늦는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짜, 불량식품 추문사건들이 그 대표적 실례”라며 “2008년 중국에서는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애기용 우유를 먹은 후과로 콩팥이 손상된 6명의 애기가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함.

● **북한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월경 인정하라고 폭행”(9/24, 경화시보)**

-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지난 17일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석방된 선장 야오루이성(姚瑞生)이 “북한 측이 월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 결국에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을 24일 보도함.
- 신문은 또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충을 들고 우리 배에 올라탄 북한 사람이 서툰 중국어로 ‘당신들이 경계선을 넘어 그물을 던졌다’고 말해 즉각 이를 부인하며 항해용 내비게이터를 확인해보라고 따졌지만, 북한 사람은 ‘어선의 내비게이터는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들을 선실로 몰아넣고 배를 북한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으며 북한 측이 지난 14일 해당 어선의 선주에게 전화해 25만 위안(약 4천 200만원)의 ‘별금’을 요구했음을 덧붙였다.

**바. 대일본**

● **일본, 유엔총회 계기로 북한에 납치문제 ‘압박’(9/24, 산케이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이 “북한에 의한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 자신이나 남은 가족에게 몇십 년에 걸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함.

● **北 송일호 “29일 북일회담, 1차 조사 통보 목적 아냐”(9/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이번 회담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국의 합의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음을 27일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北, ‘김정은 친서’ 유엔총장에게 이례적 전달 눈길(9/28,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27일(현지시간) 리수용 외무상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정부 관계자는 28일 “집권 3년이 다 되어가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정상국가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라면서 “외교무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함.

## 자. 기타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침해현상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 관련 ‘인권 옹호를 떠드는 미국이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후진국’이라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기 전에 자기의 인권실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9.22,평양방송)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강석주 黨 비서)과 몽골인민당 대표단의 회담, 9월 20일 인민당청사에서 진행(9.22,중앙통신)
- 몽골 사회민주여성동맹 대표단(단장: 쯔.초그줄마 위원장), 9월 2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9.22,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대통령의 IS 격퇴를 위한 ‘반테러전략’은 “수많은 민간인 대학살 참극을 낳은 기존의 ‘반테러전’”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에서 ‘반테러전’을 또다시 재현하고 그 영역을 시리아까지 확대하는 경우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9.23,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이슬람교 국가가 중동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 박멸하는 것이 목표’ 발언 (조 바이든 부통령, 케리 국무장관 등) 관련 ‘미국이 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력이 마치도 세계에 평온을 가져올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맥 빠진 자의 한낱 객기에 불과하다’며 ‘민심을 잃은 미국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嘲笑 (9.25,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014년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 9월 25일 전기철 부국장을 비롯한 국가해사감독국 일꾼들과 駐北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9.25,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주도 ‘북한 인권 고위급회의’ 개최(9.23, 뉴욕) 및 北 대표의 참석 무산과 관련 ‘미국의 對北 고립압살 책동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너절한 反北 인권 광대극, 反北 모략’이라고 반발(9.27,중앙통신)
- 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 안동춘 부의장)↔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단장 : 르 곤치그도르지 국가대회의 부의장) 회담, 9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27,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9월 25일 피지 수상으로 임명된 ‘보리케 바이니마라마’에게 축전 (9.27,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9.22) 몽골 사회민주 여성동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혁명열사릉·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경상유치원 등 참관(9.27,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센터 대표단(단장 : 프란시스 마우트너 마르크호프 소장, 9월 27일 평양 도착(9.27,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매체 “김정은의 삼복철 강행군”(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자 ‘백두산의 후손답게 창조하라’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자동화·무인화의 모델로 천지윤활유공장을 재차 선전하며 이 공장에 “원수님(김정은)의 삼복철 강행군 자욱”이 담겨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삼복철 강행군을 함께 선전하며 김 제1위원장이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삼복철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 TV, 다리 저는 김정은 보여주며 “불편하신 몸” 언급(9/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5일 ‘인민을 위한 영도의 나날에’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초 남포시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영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김정은)”이라고 칭송함.
  - 방송은 기록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천리마타일공장 구내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무거운 제품을 직접 들어보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며 “온몸 땀으로 흠뻑 젖으셨지만 자신의 노고는 아랑곳 않으시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찬양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장성택 후임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최룡해 임명(9/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한 북한 대표팀이 23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을 마중나온 최룡해 당 비서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호명함.

- 통신은 최룡해 당 비서 외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위원으로 호명해 국가체육위 출범 당시 직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함.

● **환영회에 음악회에…잠행 벗어난 뉴욕의 리수용(9/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리수용 외무상이 27일 낮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중국식당 ‘선리 팰리스’에서 재미교포단체가 여는 오찬 리셉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26일 보도함.
- 리 외무상은 연설 후 맨해튼 ‘머킨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평양국제영화제서 반전·평화작품 다수 수상(9/20; 9/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영화제 폐막 소식을 전하며 영화제 최고상인 ‘최우수영화상’은 독일 영화 ‘나의 아름다운 나라’가 차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지난 20일 이들 작품을 소개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지향을 반영한 영화들이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최고인민회의의 ‘중대발표’ 없어(9/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 대내외 정책과 관련해 ‘중대 결정’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군 관련 정책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경제관리 방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北 최고인민회의의 ‘교육개혁에 총력’ 결의(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게재한 최고인민회의의 보고자와 토론자 발언 전문을 통해 교육 사업에 국가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보고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또 신문은 이에 대해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토론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2017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체모에 맞는 물질적 토대를 완전히 갖추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음을 덧붙임.

- 박봉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의 석탄대장량과 생산실태 현재 요해(9.22,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김정은의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해 황무지가 낙원의 등판으로 천지개벽되고(세포·평강·이천군) 있다’며 ‘오늘 강원도 세포지구에 펼쳐지는 모든 선경들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들’이라고 칭송 및 세포지구 개간성과 선전(9.22, 중앙방송)
- 김정은 서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청년중시 정치를 계승해나가는 신념의 선언이며 청년운동의 불멸의 대강’이라며 ‘모든 청년들은 김정은 시대를 세기적 변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9월 23일 태형철(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9.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지원(9.23,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김정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감사’ 전달(9.24, 중앙방송)
-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창립(‘54.9.24) 6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4일 오수용(黨 비서)·김덕훈(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온실남새(채소) 과학기술강습(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총회 주최), 9월 22일~24일 평양에서 진행(9.24, 중앙방송·평양방송·중앙통신)
-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 9월 26일 만경대 방문(9.26, 중앙통신)
- 율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6일 박춘남(문화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대표단(단장 : 아나톨리 돌가체프 중앙위 1비서), 9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대표단(단장 : 리동제 회장)과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 국방문단(단장 : 신경화·최인태 교장 각각 단장), 9월 2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관광의 날(9.27)」기념 글을 통해 ‘북한은 앞으로도 관광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9.2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방송)
- “당의 통일단결은 선군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 혁명승리의 담보”라며 쏘민은 ‘김정은 영도 따라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고 독려(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현지지도(2009년 9월) 표식비, 9월 27일 평양메기공장에 건립 및 준공식 진행(9.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천 AG 참가중인 北 올림픽위 대표단과 선수단 성원들, 9월 27일 “남조선 인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그리는 밤’ 모임을 진행했다”고 보도(9.28, 중앙통신)
- 北 용양광산,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백금원’ 새로 건설(9.28,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 北 중앙예술단, 지방 생산현장서 공연…중산 독려(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3면 대부분을 할애해 국립연극단을 비롯한 여러 중앙예술단의 위문공연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함.
- 신문은 4·25예술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들로 구성된 영화예술인 경제선동대는 청천강화력발전소와 룡수탄광 등에서 위문공연을 진행했으며 국립민족예술단은 평양화력발전소 생산현장에서 공연무대를 펼쳤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의 공연을 봤다는 2·8직동탄광 김명수 분 초급당비서가 “예술인들이 막장에까지 들어와 노래도 불러주니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갱 안의 탄부들을 이끌어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음을 보도함.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北 8월 식량배급량 하루 250g …3년 만에 최저”(9/2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4일 지난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주민 1명당 하루 250g으로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의 ‘2014 북한 가뭄과 식량안보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보고서에 의하면 봄 가뭄 탓에 지난달 주민들에게 분배한 식량 배급량이 북한 당국 목표치(573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VOA는 전함.
- 현대연 “北 농업개혁 성공 시 10년뒤 GDP 2배로 늘어”(9/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농업개혁 사례를 토대로 북한이 농업개혁에 성공할 경우 10년 뒤 GDP가 2배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고 25일 전함.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장경제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개혁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며 개혁안에는 생산체제를 가족 단위 자율경영제로 바꾸고 국가와 개인 간 생산량 분배비율도 기존 7대 3에서 4대 6으로 개인 몫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중국 관광업계 “북한 서비스·태도 달라졌다”(9/19, 중국신문사; 9/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신문사가 지난 19일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에서 개막한 ‘제3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북아관광포럼’에 참석한 중국 여행사 대표들이 북한의 유례없는 서비스·태도 변화를 언급했다고 22일 보도함.
  - 뉴스는 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들어 자가용, 열차, 전세기 등을 이용해 북한관광을 떠나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북한 측이 예전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8개월째 통계상 ‘제로’(9/14, 교도통신; 9/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세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중국무역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올해 8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분류코드 HS 2709)의 규모는 ‘0’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북한 측에 핵개발 중단이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을 수출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음을 덧붙임.

-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2~25) 개막식, 9월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22,중앙통신·중앙방송)
- 송도원역-세길역 사이 철길 개통 및 송도원역 준공(9.23,중앙통신)
- 北 광명레드(LED)·태양전지공장, 축산과 남새생산 등에 효과적인 여러 가지 ‘기능성 레드(LED)등’ 개발 및 도입선전(9.25,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지능정보연구소, 투과식 전자현미경의 CNC(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화 실현(9.26,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에서 ‘신형 진동측정 및 균형잡이기구(베어링 등 마모에 의한 진동을 측정·분석, 고장진단) 개발 도입’ 선전(9.27,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U-16 축구 선수들 금의환향에 축제 분위기(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장하다, 어머니 조국을 빛낸 미더운 아들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북한 16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23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을 대서특필함.
  - 신문은 “버스의 앞길에 꽃보라가 뿌려지고 환영의 꽃바다, 기쁨의 춤바다가 펼쳐졌다”며 “주체체육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이 어린 축구선수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 거리를 뜨겁게 달궜다”고 묘사함.
- **‘체육열풍’ 北, 스포츠 중계방송대회 개최(9/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전국체육방송화술’ 경연이 개최됐다고 27일 보도함.

- 통신은 한 심사위원과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회가 “날로 높아가는 대중의 체육 열의에 맞게 체육방송 화술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건강한 몸 만들자”…北에서도 ‘코어 운동’에 관심(9/22,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신보가 22일 “몸중심 근육의 발달과 훈련이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속에서도 관심사로 되고 있다”며 최근 통일거리운동센터를 비롯한 헬스장을 중심으로 코어근육운동이 인기를 끈다고 보도했음을 전함.
  -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코어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제12차 태권도 기술혁신경기, 9월 16일~23일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진행(9.23, 중앙통신)
- 최창식(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장 교수 박사),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예방약 개발 추진 및 감염증과 피해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예방조치’에 총력(9.24, 중앙통신)
- 홍은정 선수, 9월 24일 여자 체조 도마 금메달 등 北 선수들의 ‘제17회 인천 AG, 메달 쟁취’ 소식 보도(9.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립교예단 예술공연무대, 9월 25일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시작(9.25,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제17차 인천 AG 여자축구 8강전(9.26)에서 중국을 1:0으로 이기고 준결승 진출 보도(9.27, 중앙통신)
- 전국 체육방송 화술경연(각道 선발 60여명 참가), 9월 23일~27일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진행(9.27, 중앙통신)
- 정학진·김지성 선수, 9월 27일 '제17회 인천 AG' 남자 자유형레슬링 57kg급·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혼합사격(러닝타겟)에서 각각 금메달 획득(9.27, 중앙통신·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29-09.30

9월

5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 개요

### 1. 대남

- 특이사항 없음

### 2. 핵문제 및 외교

- 北, 日과 중국 선양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담 진행(9.29)
- 北, 반 총장에게 전달한 건 ‘친서’ 아닌 답전(9.29)

### 3. 대내 정치

- 김정남, 佛파리에서 목격(9.30)
- 리수용 외무상 방러(9.30)
- 김정일 금강산지구 현지도 14주년 기념행사(9.30)

### 4. 경제

- 北, 러시아와 철도 개보수·현대화 협력 협의(9.29)

### 5. 사회

- 특이사항 없음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南의 대화 촉구는 기만…뻘라살포 중단이 우선”(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뻘라살포 망동은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패당은 뻘라살포로 인한 험악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면서 요사스러운 대화 타령으로 우리를 계속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촉구가 “뿌리 깊은 대결적 기도를 가리기 위한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또한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남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라면서 “그것(대북전단 살포)은 사실상 총포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최악의 도발로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무조건 중지되어야한다”고 강조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정부 “대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9/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통일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대통령의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北 주민들의 반향들을 소개하며 연일 대통령 실명 비난(9.29, 중앙방송)
- 韓-美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에 대해 “미국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범죄적 흥계의 산물”이라고 비난 지속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주장(9.30, 중앙통신·민주조선)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 특이사항 없음

### 다. 회담 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 미 국무부, 북한 김정은 신병이상설에 “노 코멘트”(9/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병이상설이 나도는 데 대해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송일호 “북한 내 일본인 조사 성실히 진행중”(9/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5시간 가량 선양 시내 성마오(盛貿) 호텔에서 북한 내 일본인 조사 문제를 주의제로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함.
- 회담을 마친 후 송 대사는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한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여러 분과에 망라된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은 일본 언론계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슨 납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자리가 아니었고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에 대한 상호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하라 국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공인납북자 12명’에서 막힌 북일협상…진퇴 기로(9/30,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 연합뉴스는 일본 신문들이 3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29일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때 북측이 애초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할 것이라고 했던 납치 일본인 등에 대한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제재의 추가해제를 고집하고 있어 양측의 골이 깊다고 지적하고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전했으며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북일 협의의 향방에 대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다. 경험한 적 없는 험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함.

● **북한, 납치 조사상황 확인차 평양 방문 일본에 요청(9/3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조사의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양에 와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북한으로부터 있었다고 30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보도함.

- 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이런 제안에 관해 “재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조속히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 “北이 반 총장에게 전달한 건 ‘친서’ 아닌 답전”(9/29, 미국의소리)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북한에 축전을 보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을 통해 반 총장에게 답전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 세계은행 “북한 정치적 상황, 작년에 더 불안정해져”(9/30, 연합뉴스)

- 세계은행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 -0.53으로, 2012년의 -0.11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2013년 PV 지수는 세계은행의 이런 통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저치라고 전함.

##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日-北 우호 여성대표단(단장 : 야마무라 치즈에), 9월 29일 귀국(9.29,중앙통신)
-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배치를 강박했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김관진 NSC 실장과 회담時)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亞-太지배 전략실행에 필요한 지역적 거점안비의 흥심'이라고 주장(9.30,중앙통신)
- 現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논의는 "자기 식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권유린국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근본적 변화와 인권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비난(9.30,중앙통신·노동신문)
- '주한미군의 연이은 폭력범죄·패륜도덕행위' 규탄 및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 세계 일류급의 범죄왕국"이라고 비난(9.30,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IS(이슬람국가) 응징 선언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럽정세 및 韓美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 등을 "9월의 국제정세"라고 주장 및 '주한미군 철수와 反帝 투쟁' 강조(9.30,중앙방송·노동신문)
-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 9월 30일 귀국(9.30,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 김정남 파리서 목격...아들 한솔 만나러 온 듯(9/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김정남은 파리 시내의 르메르디앙 에투알 호텔에 묵고 있으며, 출장 온 한국 기업인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되었고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아들 김한솔을 만나러 프랑스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방러 일정 시작(9/30,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박 11일간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외무상과 수행원 등 일행 7명은 곧바로 공항 귀빈실에서 영접 나온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아주1국 부국장 등 러시아 인사들과 약 1시간 동안 환담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유엔총회 제69차 회의 참가 리수용(외무상), 유엔사무총장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각각 담화(9.29, 중앙통신)
- 김영남, 9월 29일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단장: 르 곤치그도르지 부의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29,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관리 “러시아와 철도 개보수·현대화 협력 협의”(9/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한 내각 대외경제성의 오태봉 참사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철도 개건, 현대화와 관련한 협력문제를 러시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또한 오 참사는 “미국 등이 유엔 간판 밑에서 조선(북한)에 부당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강원도 원산시에 잔디연구소 새로 건설 준공(9.30,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평양 능라유원지에 야외공연 무대…밤마다 예술공연 (9/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야외공연 무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풍치 수려한 능라인민유원지에 야외공연 무대가 생겨나 수도의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더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야외공연 무대에는 공연 활동과 관람에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능라도에 어둠이 깃들면 오색 찬연한 전광불빛에 의해 윤곽이 드러난 야외무대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통신은 전함.
- **“北서 오토바이 수요 증가…지방도시서 특히 인기”(9/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북한에서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생산업체에서 새 기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북한 금원무역총회사 산하의 금강오토바이회사 김명철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회사의 오토바이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평양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함흥 등지에 꾸려진 판매소의 업무실적이 (이를) 실증해준다”고 밝힘.
  - 김 사장은 특히 지방도시 주민들이 승용차나 화물차보다 연료소비가 적고 운전하기 쉬운 오토바이를 선호한다며 “업무와 경영관리에 자동차를 쓰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여러모로 실리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함.

10.01-10.05

10 월

1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南 통일론은 ‘흡수통일론’이라 비난하며 연방제 통일 방안 주장(10.1)
- 정부, 개천절 남북 공동기념행사 관련 단체 방북 승인(10.1)
- 北 국방위, 朴대통령 국무회의 ‘대북 발언’ 원색 비난(10.2)
- 北조평통, ‘10·4선언’ 7주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10.2)
- 北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2차 고위급접촉 합의(10.4)

2. 핵문제 및 외교

- 北서해 발사장 증축 완료, 연내 로켓발사 가능성론 대두(10.1)
- 김정은 黨 제1비서, 中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10.1)
- 北 억류 미국인 파울 씨, 美 정부 석방 노력 촉구(10.2)

3. 대내 정치

- 김경희 위독설 제기(10.2)
- 韓·美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없어”(10.2)

4. 경제

- 北, 7,8월 中서 곡물수입 급증(10.1)

5. 사회

- 北 김일성大 ‘교육개혁’, 외국어·영재교육 강화(10.1)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南 통일론은 흡수통일론…‘연방제안’ 논의해야”(10/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0월 10일 연방제안 34주년을 앞두고 1일 발표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에서 “현 남조선 당국자는 유엔 무대에까지 찾아가 독일 통일과 역지로 결부시키면서 흡수통일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고 전함.
  - 담화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분열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통일방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집권유지를 위해 각양각색의 ‘통일론’을 들고나와 민족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흡수통일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심으로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통일 운운하면서 해외에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선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 문제에 관한 민족적 논의에도 응할 수 있는지 자기의 입장에서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국방위, 박대통령 국무회의 ‘대북 발언’ 원색 비난(10/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2일 조선중앙방송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동족대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은 셈”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특히 박근혜는 우리 인권문제가 저들이 추구하는 통일의 주요 목표라고 공언하는 것으로 괴뢰당국이 말버릇처럼 쫓기는(지결이는) 통일이 결국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정치적 흥계에 도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유린”이라고 주장함.
  - 또한 박 대통령이 미국의 ‘북 인권소동’에 ‘합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북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독설은 우리에게 대한 흡수통일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선포”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정신병자’, ‘특등 대결광’, ‘미친개’ 등 극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함.

● 北, '10·4선언' 7주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10/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0·4 선언 7주년을 이틀 앞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며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삼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조평통은 이어 '드레스덴 선언',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공동 선언을 거역하는 행위"라며 남측이 "북남선언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언급하며 "민족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동족대결을 청탁하는 역겨운 외국추종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도 재차 촉구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온 겨레의 통일 지향에 도전해 끝끝내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 6·15 남·북·해외위 "2015년 통일의 전기 만들자"(10/3,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7주년을 하루 앞두고, 공동으로 발표한 '북남 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호소문에서 "오늘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군사적 대결은 나날이 짙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이어 3개 단체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 개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북과 남의 당국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북남선언들을 당리당략의 농락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준비기구를 내오고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나가며 온 겨레가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각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조선신보 "여자축구 결승전 남측 응원에 감동"(10/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통일의 메아리'라는 글에서 북한의 아시안 게임 성과를 전하며 "이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경기 자체만이 아니라 경기장마다 남녘의 겨레들이 북측 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라고 전함.
- 이어 조선신보는 "압권은 여자축구 결승전이였다"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선수 잘한다', '우리는 하나다', '힘내라 코리아', '조국통일' 등과 같은 현수막과

구호가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을 크게 고무해줬다고 밝히고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준 잇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강조함.

● **北, 대표단 파견 속 10·4선언 이행 촉구(1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사설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측 위원회의 호소문 등을 잇달아 싣고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실천을 강조함.
- 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힘.
- 특히 최근 핵·인권 문제를 지적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떠나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사대 매국행위”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시금석’, ‘6·15의 명맥을 잇는데 통일 애국이 있다’ 등의 기사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의 공동호소문도 게재함.

● **조선신보 “北고위급 방남, 김정은 결단…공은 청와대로”(10/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인천의 열기로 민족 화해의 대통로를 열어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북남 당국 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돼왔으나 인천의 경기장에서 는 체육을 통한 민족 화합이 이뤄졌다”며 “북의 최고수뇌부도 그 정신을 대담하게 실천해 경기대회 폐막식에 고위인사들을 파견했다”고 밝힘.
- 이어 “인천을 찾은 고위인사들은 서울까지 방문길을 연장해 청와대의 주인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큰 걸음을 내디딘 북측은 당연히 남측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평양에서 민족 화해의 사절들이 내려와 북남관계 개선의 단초가 만들어진 것만큼 이제 공은 서울의 청와대에 넘어갔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한 방문이 “북남관계 개선의 중요 계기를 마련한 최고영도자의 결단”이라며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룡해 비서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비서와는 달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에 파견된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 北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2차 고위급접촉 합의(10/4, 연합뉴스)

-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4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임 대변인은 “북측은 ‘2차 회담이라고 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께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실 용의가 있었으나 북측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와 시간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힘.
- 정부 고위 당국자는 “친서는 없었지만 (대남) 메시지를 들고 왔다”며 “오늘은 남북이 참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회담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도 없었다”고 전함.
- 4일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 실장, 류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 천해성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 8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외에 김영훈 체육상,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 체육성 부상 등 8명이 참석함.
- 북한 대표단은 회담 후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측 선수들을 격려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동,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명도 만났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대표단은 이어 폐막식을 관람한 뒤 정홍원 총리를 만나 인사를 하고 밤 10시25분께 12시간여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IL-62 항공기를 타고 귀환함.

## 라. 대남 군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 개성공단 근로자 간식 ‘북한산 과자’ 지급될까(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개성에 있는 한 북한 기업소가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에 ‘봉동과자’라는 제품을 근로자 지급 간식으로 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2일 보도함.
-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외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자체 결정 사항이라면서 난색을 표명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도총국 등 당국 차원의 압박을 가해온 것은 아니어서 개별 기업이 자율권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평양서 9년 만에 개천절 남북 공동기념행사(10/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1일 보도함.
- 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 김삼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 개천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전함.

###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개천절 행사 평양 방문(10/1, 연합뉴스)

-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가 2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리는 개천절 경축행사와 단군제 봉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이번 방북에는 연구회 장두석 이사장, 이애주·임재택 교수 등 5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한 전역에 방송되며 방북단은 북측 대표단과 4차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뉴스는 전함.

### ●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 선수촌 세탁장에 화환 선물(10/2, 연합뉴스)

-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북한 여자축구 선수 2명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 때 받은 꽃다발을 선수촌 세탁장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네며 그동안 세탁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2014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단군릉 개건 20주년 계기), 10월 3일 단군릉 앞에서 김영대(‘민화협’ 회장) 및 남측 대표단(김삼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총상임준비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3, 중앙방송·중앙통신)
- 대통령의 「국군의 날(10.1)」 기념사, ‘북핵·인권문제’ 언급에 대해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결코 협상용·흥정물이 아니다’고 ‘핵포기 불가’ 강조(10.3,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 38노스 “북한, 8월초 이동식 ICBM 엔진실험 실시”(10/1, 38노스)

-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윌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8월11일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지난 8월 초·중순에 자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엔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
- 윌트 연구원은 “이번 실험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1단계 엔진실험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이번 실험을 계기로 엔진실험이 모두 끝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하며 “만일 북한이 엔진실험을 모두 끝냈다면 북한이 앞으로 전면적 발사실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정확히 언제 엔진실험을 완료하고 발사실험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함.

#### ● “북 서해 발사장 증축 완료…연내 로켓발사 가능성”(10/1, 38노스)

-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지난 9월 4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2013년부터 시작된 서해 로켓 발사장의 주요 건설프로그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38노스는 또 “북한은 이제 또 다른 로켓 발사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올해 말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 다. 회담 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 北, 美 ‘세계 전략’ 비난…“초대국 지위유지는 망상”(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유일초대국의 지위 유지는 헛된 망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군이 완성한 새로운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의 중점은 적군의 타격을 불의(불시)적이고 즉각적인 선제공격으로 마비시키는 데 있다”며 미국의 목적은 ‘유일 초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함.
- 특히 “미군의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은 우리의 주되는 적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입증해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완성한 새 전략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든든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로켓 발사를 비롯한 모든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 이리 쿵저러쿵 시비질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함.

### ● 北 억류 미국인 파울 씨, 美 정부 석방 노력 촉구(10/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가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가진 외신 및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과 (우리의 석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마. 대중국

### ● 北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북중친선’ 생략(10/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히고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번 축전에는 과거 국경절 축전에 들어 있던 표현이 다수 생략됐다고 1일 보도함.

## 바. 대일본

###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北 리수용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상, 10월 1일 회담 진행(10.2,중앙통신)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0월 2일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아나톨리 돌가체브 중앙위 1비서)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하였던 北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단장 : 김을호 부소장), 10월 2일 귀환(10.2,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10월 3일 귀국(10.3,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4)】 ‘미국이 핵문제·인권문제 등으로 우리(北)의 노선과 정책, 제도를 전면 부정하며 반공화국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대처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무제한하게 취해 나갈 필요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10.4,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 구입계획 발표 관련 ‘미국이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겨 정세를 악화시키다가 새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검은 속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10.4,중앙통신·노동신문)
- ‘매개 나라들이 자주적 대를 세워나가자면 경제를 자립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인적,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한다면 남남협조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다그칠 수 있다’고 주장(10.4,중앙통신·노동신문)
-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센터 대표단, 10월 4일 귀국(10.4,중앙통신·평양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 北 김정은 ‘잠행’ 중 ‘감사’·‘선물’ 전달은 계속(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자 1면에 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선물을 보내시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휴양소의 관리운영과 휴양생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비품,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운전기재(차량)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한꺼번에 모두) 보냈다”고 밝힘.

##### ● 한·미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없어”(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2일(현지시간) “김 제1위원장이 발목에 나타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변설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며, 김정은 통치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들은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에 부종과 물질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뉴스는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김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장기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 “北 탁구영웅 리분희, 교통사고로 중상”(10/2, 미국의소리)

- 10월 18일 개막하는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9월 25일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 ‘두라’ 대표인 이석희 목사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함.
- VOA는 리 서기장이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리 서기장의 차에 타고 있던 장애인 학생들도 다쳐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 ● “美심장전문의, 김경희 치료차 방북”…위독설 제기(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지난달 28일께 미국의 심장 전문의가 김경희 전 비서를 치료하러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심장 전문의는 재미 교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북한에 머물며 김 전 비서를 치료 중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 ‘김정은 전용기’에 경호원까지…北대표단 ‘위상 과시’(10/4,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차 4일 남측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이 자체 경호원을 대동하고 ‘김정은 전용기’를 이용하는 등 이전 북측 사절단과 달리 ‘최고 실세’로서의 위상을 과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황병서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최룡해·김양건에 앞서 이동해 대표단을 이끌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보였던 최룡해·김양건과 달리 경호원에 둘러싸여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해 대표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양건 비서가 오찬장에서 “총정치국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서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한 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인사에 화답한 것도 황병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북한은 오전 9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 김양건 동지가 동행했다”고 방남 사실을 공식 발표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3시 보도에서 대표단이 “정부비행대 비행기로 인천을 향해 평양 비행장을 출발했다”고 전하며 이 전용기가 ‘정부비행대’ 소속이라는 점을 밝힘.

#### 다. 공식 행사

##### ● 北, 금강산서 김정일 시찰 기념행사…관광재개 ‘손짓’(10/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일 위원장의 금강산지구 현지지도 14주년 기념행사가 9월 30일 금강산 현지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이번 기념행사에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참석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친필비 앞에서 기념집회도 열렸다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특이사항 없음

-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14’ 개막식, 10월 1일 최룡해(黨 비서/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10.1,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 저작 발표(‘90.10.3) 관련 ‘김정은에 의해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힘차게 떨치고 있다’며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은 필승불패’ 주장(10.3,중앙통신·노동신문)
- 10·4선언 발표 7돌 즈음 좌담회와 사진전시회, 10월 3일 평양에서 진행(10.4,중앙통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北, 中서 곡물수입 하반기부터 급증…6월작황 부진 탓(10/1, 연합뉴스)
  -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5만8천387t의 곡물을 수입, 월 1만t 정도의 곡물을 들여왔는데 하반기 들어 7월 1만9천559t, 8월 2만5천217t을 각각 수입하며 북한이 7, 8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상반기와 비교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북한이 이처럼 7월부터 곡물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은 6월 말에 수확한 이모작 작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가을 작황도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에 미리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러시아 투자단 이달 하순 방북…경제협력 문제 논의”(10/1, 인테르팍스통신)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포함한 대표단이 이달 20~24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갈루슈카가 방북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측과 개성 공단 및 새로 조성될 청진 공단 등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와 러시아의 투자로 최근 준공한 북한 나진항 활용 사업에 한국 측이 참여해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리 외무상은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전함.

- **“美 단체, 北에 수도시설 2곳 설치 위해 방북”(10/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사리원 등 황해남북도 지역 북한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기 위해 지난달 말 방북했다가 9일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방송은 단체가 북한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한대당 설치비용이 2만5천달러(약 2천 660만원)이며 방북한 실무진은 미국인을 포함한 서양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함.
  
  - **유진벨 재단, 결핵치료 지원차 이달 방북(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유진벨 재단의 존 로저스 미국지역담당 이사가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안에 결핵치료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확한 방북 날짜와 관련해 “북한 보건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로저스 이사는 “의사와 재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방문단이 약 3주간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러시아, 식량 5만t 대북 지원…첫 선적분 남포항 도착(10/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러시아연방 정부가 조선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 5만t 중 첫 배가 3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성의있는 지원은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표시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전함.
- 北 클로렐라공업시험소 소장 연평혁, 천연유기탄소원에 의한 클로렐라 인공배양 기술 개발 선전(10.1, 중앙통신)
  - 함흥목재가공공장, 9월 인민경제계획 수행(10.2, 중앙방송)
  -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신형 경량활차’ 개발 및 현실 도입(건축물 내·외부 미장 및 도장 등에 이용) 선전(10.3,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 北 김일성대도 ‘교육개혁’…외국어·영재교육 강화(10/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김일성대 개교 68주년을 맞아 이 대학의 교육 개선 노력을 소개하며 “대학에서는 지난 9월에 외국어 청취 및 회화 경연을 조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 속에서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고 있다”고 밝힘.
- 또 김일성대가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경제학부에서는 시범적으로 8개 교실을 전자교실로 꾸리고 10여개의 강좌들에 컴퓨터망을 통해 교육과학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소개함.
- 김일성대의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논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함.

#### ● 北, 교사에 학생체벌 자제 주문…“손뼌 권리 없다”(9/18, 교육신문; 10/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9월 18일자)은 ‘손이 가벼운 교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원에게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줄 권리만 있지 손을 댈 권리는 절대 없다”며 교사들에게 학생 체벌 자제를 주문했다고 5일 보도함.
- 북한의 공식 매체가 이와 같은 글을 실은 것은 최근 의무교육과정인 중등일반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 北 신문 “인천 아시안게임 성적, 김정은 영도의 결실”(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1면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대회 성적이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친 영웅적 장거”이자 “우리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과 체육중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평가함.
- 사설은 “체육을 국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체육 발전에 크나큰 힘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오늘과 같은 경이적인 우승의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최대 종합경기장에 “FIFA 기준 인공잔디 깎다”(10/5, 조국; 연합뉴스)**
  - 5월1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인 조종문 국가건설위원회 처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0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이번에 축구경기장 바닥은 국제축구연맹이 인증한 재료로 만든 인공잔디를 깔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백두산에 올해 첫 눈(10/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백두산 기상관측소 관측 결과 9월 29일 오후 6시 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백두산에 5cm의 첫눈이 내렸다”고 보도함.
  - 올해 첫눈은 평년보다 16일 늦어진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세계 노인의 날(10.1)’ 즈음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 모든 연로자들이 연로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건강한 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고 주장(10.1,평양방송)
- 제11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9.29~10.1까지 평양에서 진행(10.1,중앙통신)
- ‘세계 노인의 날(10.1)’ 즈음 새 우표(개별우표 1종) 발행(10.3,중앙통신)
- 北,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을’이 시작됐다고 보도(10.4,중앙통신)
- 北,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 보수 진행(10.4,중앙방송)
- 양강도 대흥단군 농사동 농장, 감자 수확에 주력(10.5,중앙방송)

- 제17차 인천 AG 참가 北 선수단, 10월 5일 평양 도착 및 '수십만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연도환영식 진행(10.5, 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선수들이 제17차 인천 AG에서 거둔 성적(금메달 11개, 종합순위 7위)은 '영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일심단결의 분출'이자 '당의 체육강국 건설과 체육중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강조(10.5, 중앙통신·노동신문)

10.06-10.12

10 월

2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전단지살포에 남북관계 위협(10.9)
-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 박대통령 발언 비난(10.10)
- 北 “빠라 살포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10.12)
- 北, 공동선언 이행 촉구…“평화변영 새 시대 열자”(10.7)
- 北 고위급 訪南 이어 ‘연방제 통일’ 공세 주목(10.7, 10.10)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10.7)
-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軍, 기관총 대응사격(10.11)

2. 핵문제 및 외교

-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장 관련 비난(10.7)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사할린 방문…경제협력 방안 논의(10.8)
- 북한, 유엔서 첫 인권설명회…“북한 인권 결의안 반대”(10.8)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위원장, 당 창건기념일 금수산궁전 참배 안 한 듯(10.10)
- 北 당·국방위, 선수단 환영 연회…‘訪南 3인’ 총출동(10.7)
- 北 김정은 고모 김경희, TV 기록영화에 다시 등장(10.12)

4. 경제

- WFP “지난달 대북식량 지원 소폭 증가…여전히 부족”(10.8)
- FAO “北 올해 쌀 생산량 190만t 예상…작년과 비슷”(10.12)
- 리수용 “카타르서 차관 도입해 북-러 농업협력에 투자 계획”(10.7)
- “北, 러시아와 나진-나훗카 정기화물선 운항 논의”(10.9)
- 북·중, 백두산에 관광코스 추가 개통(10.12)

5. 사회

- 특이사항 없음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뼈라살포에 남북관계 위협…정부 자제요청·단체 강행(10/9, 조선중앙통신)**
  -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언급하며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악” 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남측이 이번 뼈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北, 박대통령 ‘이중행태’ 발언 비난…“신중 기해야”(10/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의 인천 방문과 2차 고위급접촉 개최 합의를 상기시키며 “박근혜는 또다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무참히 모독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음을 보도함.
  -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박근혜는 악화된 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北 대남기구 “연방제 통일안이 최선…6·15 이행해야”(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전선 중앙위원회는 10일 김일성 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표 34주년을 맞아 발표한 ‘비망록’에서 6·15 공동선언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통일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6·15 공동선언을 존중해야 하며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비망록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 방도’를 나열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선이 이들의 “전면적인 계승이고 심화발전”이라고 강조함.

- 北 “빠라 살포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10/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2일 발표한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0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빠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또 “지금은 백 마디, 천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놀음으로 세월이나 허송하겠는가 하는 저들의 진속을 온 겨레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매체 고위대표단 방남 이후 대남 비난 자제(10/5, 노동신문; 10/6, 노동신문; 연합뉴스)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남 이후 북한 대내용 매체의 대남 비난이 사라져 눈길이 끝났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노동신문은 5일자 1면에 황병서 일행이 방남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보도를 신고 6일에는 6면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며 이외에도 6일자 노동신문은 남측 단체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재중동포 단체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했다는 기사 등을 실으며 화해분위기를 띄웠다고 전함.
- 北, 공동선언 이행 촉구…“평화변영 새 시대 열자”(10/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7일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밝은 전도가 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7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의거할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함.
- 北 고위급 訪南 이어 ‘연방제 통일’ 공세 주목(10/7, 노동신문; 조선신보)
  - 노동신문은 7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애국애족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방제 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이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도 7일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통일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거론하며 “북남이 합의한 연방연합제의 길로 나가야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10/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하여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에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7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합참 관계자가 “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 및 대응사격을 했다”며 “우리 쪽의 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우리가 발사한 포탄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함.

### ●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軍, 기관총 대응사격(10/11,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10여발을 쏘 일부 탄두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우리 군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K-6 기관총 40여발을 인접 북한군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대응 사격했으며 이후 남북 GP 사이에 2차 총격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합참은 “이번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으며 전방 지역에 경계 및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 “北, 미사일전력 통합·자동화…김정은 명령 신속수행”(10/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모든 미사일 전력을 통합, 발사체계를 자동화해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사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 최근 1~2년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선수부상”...영천 ‘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 불참(10/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경북 영천에서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6일 밝힘.
- 일단 우리 측은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참 통보가 북측이 밝힌 ‘선수 부상’ 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내고 귀환(10/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측이) 선수촌에 묵은 비용 등 일부를 내고 갔다”며 “조만간 남북협력기금 지원 상한액이 결정되면 북한 부담분을 빼고 우리측 단체에 (북측 비용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7일 보도함.
- 통일부는 아직 자세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측이 낸 돈은 1억~2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입국(10.11, 연합뉴스)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장 관련 비난(10/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7일 논평에서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장 관련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 추구하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언젠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악의 제국이 비핵화와 핵전파방지를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비난함.
- 北 “북러 친선 전통 이어갈 것”…양국 수교 역사 강조(10/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6면에 게재한 ‘조로(북러)친선의 장구한 역사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시기 조로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서로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관계 발전을 추동해나가는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조로친선의 역사와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 마. 대중국

- 북중수교 65주년에도 北 매체 관련 보도 ‘잠잠’(10/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6일 194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꼬박 65주년을 맞았지만, 북한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관련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매년 10월 6일이면 ‘논설’ 형식의 글을 통해 북중 수교 기념일을 축하하고 중국과 친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올해는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끝자리 숫자가 ‘0’이나 ‘5’인 해)라는 점에서 북한의 조용한 분위기가 더욱 눈길을 끈다고 뉴스는 밝힘.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사할린 방문…경제협력 방안 논의(10/8, 사할린인포)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8일(현지시간) 극동 사할린주를 찾아 주정부 인사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인터넷 뉴스통신 ‘사할린인포’가 전함.
  - 리 외무상은 회담을 시작하며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등 여러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주로 극동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설명함.
  - 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경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강석주, 러시아 식량지원에 감사 표명(10/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강석주 비서가 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수교 66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외부세력의 불공평한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정부와 국민이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대해 보여준 사례 깊은 태도와 진심 어린 식량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강 비서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 동안 양국이 검토 중인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러 주재 北 대사, 양국 수교 66주년 기념연회(10/11,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 주재 김형준 북한 대사가 북·러 외교관계 수립(10월 12일) 66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토르신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1부의장, 러시아의 북핵 6자 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등 외무부, 상·하원, 국방부, 원동발전부, 농업부, 교육과학부, 러시아철도주식회사, 과학원 극동 연구소, 친선협회 관계자들이 초대됐으며, 토르신 1부의장은 “조선은 오래고도 공고한 친선과 선린의 유대로 이어진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우리는

최근 러·조 관계의 발전방향이 두 나라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아. 국제기구

### ● 북한, 유엔서 첫 인권설명회…“북한 인권 결의안 반대”(10/8,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7일 설명회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서 가진 사상 첫 설명회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방어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 유엔, 북한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10/9, 연합뉴스)

-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보도함.

### ● 북한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10/10,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전날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만들어 회람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가 이전보다 강한 조치를 추진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북한 유엔대표부는 편지에서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면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 北 강석주, EU에 ‘북한 인권결의 내용 완화’ 요구(10/12, 연합뉴스)

- 지난달 유럽 국가를 순방한 강석주가 지난달 9~10일 벨기에 방문시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나 EU측과 다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전제로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직접 말했다고 북수의 소식통이 12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정부의 ‘대인지뢰 사용 등 금지’ 방침 및 한반도에서만 예외 적용 발표(9.23, 국무부)에 대해 ‘北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한반도를 세계제패 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써먹으려는 흉심’이라며 ‘한반도에서 모든 무력 철수’ 주장(10.6,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 10월 7일 駐北 폴란드대사의 신임장 접수(만수대의사당) 및 대사와 환담(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미동포 ‘정기렬’에게 사회정치학박사학위 수여의식, 10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오스트리아 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돌 기념 우표전시회 합동공연, 10월 2일 ‘빈’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유엔통보모임, 10월 7일 유엔본부청사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駐北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계획 대표부 성원들과 정일심 동포(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 및 駐北 베트남 대사, 10월 9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10.9,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인 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 10월 9일 평양 출발(10.9,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 주재 외교관 체육대회 평양 대성산유원지에서 7일에서 12일에 걸쳐 열림(10.12, 중앙통신)
- 美 케리(국무장관) 등 ‘北 인권·핵문제 지적’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궤변, 극악한 적대시 책동”이라고 비난 및 ‘인권문제의 국제적 협력용의 및 핵포기 불가’ 지속 강조(10.11, 평양방송)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0월 8일 北 ‘黨 창건’ 69주년 즈음 北 노동당 중앙총에 꽃바구니 전달(10.11, 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 北 김정은, 당 창건기념일 금수산궁전 참배 안 한 듯(10/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최근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매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마다 해오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작년 모두 10일 0시 군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이 소식을 보도했지만 북한 매체는 10일 오전 8시 현재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덧붙임.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 北 당·국방위, 선수단 환영 연회…‘訪南 3인’ 총출동(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단을 위해 6일 평양 목란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환영 연회장에는 지난 4일 인천을 방문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모두 참석했으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체육선수와 감독, 관계자들, 선수 가족들이 연회에 초대되었다고 방송은 전함.
- 이들 외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로두철·김용진 내각 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럽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종무 군 중장(별 2개) 등이 참석함.

#####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열흘 방러 일정 마치고 귀국(10/10, 이타르타스통신)

-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현지시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함.
- 리 외무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현지 주재 이타르타스 특파원과 한 인터뷰에서 “10일 간의 방러 기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러시아 인사들과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北 김정은 고모 김경희, TV 기록영화에 다시 등장(10/12,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모습이 담긴 기록영화를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앙TV가 12일 오전 내보낸 기록영화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일으켜주시여’에서 김경희는 김 제1위원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 모습이 두 차례 포착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 다. 공식 행사

-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보고대회…김정은 불참(10/7,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중앙TV 화면에 잡힌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비서 등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다녀간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강석주·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나왔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AG선수단 귀환 대서특필…‘방남 3인’ 소식 빠져(10/6, 연합뉴스;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의 귀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명분으로 남한을 찾았던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의 방남 활동과 귀환 소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신문은 6일 1~3면을 선수단의 평양 도착 기사와 시내 퍼레이드 사진으로 모두 채웠으며 1면에서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수단 시내 퍼레이드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과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의 ‘체육중시사상’과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임을 크게 부각함.

● **北 신문, 당창건 기념일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강조(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억척불변하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당은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높이 날리며 영도자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신문은 또 “혁명적 원칙,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 숙청했다”며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도전하는 불순이색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려는 혁명적 기개”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냄.

● **北, 김정일 총비서 추대 17주년…김정은에 충성 다짐(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장군님(김정일)의 위업과 유훈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밝혔다. 신문은 사설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컬러 사진도 게재함.
- 신문은 8일 2면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싣고 3면에는 김기남 당비서가 보고대회에서 한 연설 전문을 게재했으며 5면에 실린 ‘만년재보’라는 제목의 글은 “모든 당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통신, 인천AG 결산…“조선열풍 일으켰다”(10/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인천 아시안게임을 결산하는 기사에서 “조선 선수들의 경기과정은 대회에 ‘조선 열풍’을 일으켰고 이는 세계 언론계와 체육계의 관심을 모았다”며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조선은 이 대회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힘.
- 한편 노동신문은 8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장하고 대견한 우리의 아들 딸”로 치켜세우며 이들이 지난 5일 귀환했을 때 환영 인파 속에서 “우리 자식도 체육을 시키겠소!”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함.

- ‘黨 창건(10.10)’ 69주년 즈음 국가과학원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 10월 6일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와 黨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등 명의 꽃바구니 진정(10.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7주년 및 ‘黨 창건’ 69주년 즈음 「농근맹」 원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경축공연(사회주의 협동벌에 울리는 노동당 만세소리), 10월 6일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서 진행 및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관람(10.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0월 7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여맹원들의 웅변모임(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10월 7일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10.8) 17돌 및 黨창건(10.10) 69돌’ 즈음 여성회관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혜경(女, 개성시 거주)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10.8, 중앙통신)
-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절대적 권위와 인정을 백방으로 옹호 보장해야 한다’며 ‘당의 통일단결을 쪼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제 때에 철저히 짓밟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10.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당 창건일 기념해 김영남, 박봉주, 황병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 10월 10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전국 道 대항 군중체육대회-14’, 10월 10일 폐막(10.10, 중앙통신)
- ‘김정일의 사상이론 활동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 노동당은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고 강조(10.12, 중앙통신·노동신문)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WFP “지난달 대북식량 지원 소폭 증가…여전히 부족”(10/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실케 버 WFP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영양강화 식품(제조) 재료가 여전히 부족해 지난달 지원 목표인 180만 명의 절반에게만 영양강화 식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며 이어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 지원할 곡물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임.
- **FAO “北 올해 쌀 생산량 190만t 예상…작년과 비슷”(10/12, 연합뉴스; 러시아의소리)**
  - 연합뉴스는 FAO가 최근 웹사이트에 게재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가 190t으로 FAO의 작년 북한 쌀 생산량 추정치와 같은 규모라고 12일 보도함.
  - FAO 북한사무소 대표는 최근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600만t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북한이 3~4년 후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이라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에 12일 밝힘.

## 라. 대외 경제 관계

- **리수용 “카타르서 차관 도입해 북-러 농업협력에 투자 계획”(10/7, 리아노보스티통신)**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7일(현지시간) 극동 하바롭스크주를 찾아 외국 자본 차입을 통한 농업 협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함.
  - 리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농업분야 장기 협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극동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양국 협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농업”이라고 강조함.
  - 또 “곡물 및 채소 재배, 목축뿐 아니라 생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장기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카타르 차관으로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北, 러시아와 나진-나훗카 정기화물선 운항 논의”(10/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 경제특구와 러시아 동부 도시 나훗카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 운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연해주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 나선경제특구 대표단이 8일 연해주 나훗카시(市) 관계자와 면담하고 양국 항구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 자리에서 나훗카·보스토치니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와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정기 화물선 운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중, 백두산에 관광코스 추가 개통(10/11, 장춘일보)**
  - 북한과 중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두산에 양국을 오가는 관광루트를 추가로 개통했다고 중국 장춘일보(長春日報)가 11일 보도함.
  - 백두산이 걸쳐 있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창바이산(長白山)관리위원회 츠난(池南)구는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두산의 북한 지역 단체관광을 시작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 동파(東坡) 코스와 혜산시, 보천보기념관을 1박2일간 여행하며 요금은 1인당 1천100위안(19만원)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 이동통신사 대주주 오라스콤 회장 방북(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이 1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12일 사위리스 회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 사위리스 회장은 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2012년 2월과 10월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1,300여건의 정보기술제품) 개막식, 10월 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승두(교육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6,중앙통신·중앙방송)
- 리과대학 에너지초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무선지체발파기(무선원격조종)의 “단번발파·미리초지체발파 실현” 및 ‘발파 효율성·굴진속도 배가 및 안전성·시간 절약’ 등 현장 도입성과 선전(10.6,중앙통신)
- 황해남도 물길건설자들, 10월 6일 물길공사장 5만산 발파 진행(10.7,중앙방송)
- 北, 중앙동물원 1단계 보수공사 90% 진행(10.8,중앙방송)
- 北,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해주·강계·원산 청진잔디연구소를 건립(10.10,중앙방송)
- ‘신형 탄소주광치료기(자외선·가시선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질병치료 이용)’의 ‘피부궤양·관절염 등 질병에 빠른 치료효과’ 등 선전(10.11,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北신문 “대학생 2개 이상 외국어 완전 습득해야”(9/25, 교육신문; 10/6, 연합뉴스)
  -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9월 25일자)은 ‘대학들에서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대학 기간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신문은 외국어 교육 강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이라며 김 제1위원장이 “여러 차례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쳤다”고 전함.
- 北, 체육대회 명칭에 ‘서기 연도’ 사용 눈길(10/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명칭에 국제적인 서기 연도를 이례적으로 사용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북한은 이달 1~10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각층이 참여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개최했는데 대회 명칭에서 숫자 '14'는 2014년을 줄인 표현으로 북한이 '주체연호'가 아닌 서기 연도만 쓰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이 대회 명칭에서 서기 연도를 쓰는 것은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뉴스는 밝힘.

● 北, 교사에 김정은 '폐기머리' 주문...“본보기 돼야”(8/15, 인민교육; 10/12, 연합뉴스)

-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4호(8월 15일 발행)는 '머리단장과 외모'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 교원들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높이 올려 깎고 윗머리를 뒤로 빚어넘긴 머리형태 등 폐기머리, 상고머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함.
- 글에서 묘사한 헤어스타일은 '폐기머리'로 불리우는 김 제1위원장의 독특한 머리형태와 거의 흡사하며 이 헤어스타일은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북한 매체가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김 제1위원장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은 있지만, 공식 매체에서 주민을 상대로 지도자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연합뉴스는 12일 전함.

-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14, 일부 경기종목(여자 그네뛰기, 800m 달리기 등) 종료(10.8,중앙통신)
- 홍은정 선수(\*제17회 인천 AG 금메달), '2014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중국 난닝, 70여개 국가·지역 남녀 600여명)' 여자 도마경기 금메달 획득(10.11,중앙통신·중앙방송)
- 체육절(10월 두 번째 일요일)을 맞아 '조선의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고 보도(10.12,중앙통신)
- 北 리세광 선수, '제45차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중국 난징) 도마에서 금메달 획득(10.12,중앙통신·중앙방송)

10.13-10.19

10 월

3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연일 대남 압박...“빠라 중지 실제적 조치” 요구(10.13)
- 北 매체, “공동선언 이행하면 이산상봉·협력사업도 해결”(10.14)
- 北 매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이틀째 보도 안해...(10.16)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박대통령 아셈 발언 실명 비난(10.16)
-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10.19)

2. 핵문제 및 외교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중단” 거듭 밝혀(10.13)
- 북한, 중국 매체 통해 서방의 ‘인권 지적’ 반박(10.16)
- 北, 美 ‘핵사용 계획’ 공언 패네타 회고록 연일 비난(10.17)
- 中시진핑, 김정은에 ‘짧은’ 답전...친선관계 언급 없어(10.17)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위원장,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아파트 현지지도(10.17)
- 김정은 黨 제1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 이착륙 훈련 현지지도 및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감독들 만남(10.19)

4. 경제

- 北, 상반기 스위스산 담배제조기 부품 수입 대폭 늘려(10.15)
- 북한, 평안북도 동림군 중국인 관광객에 개방(10.16)
- 제3회 북·중 종합박람회 단동서 개막(10.16)
- 북한 “경제특구 투자자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10.17)

5. 사회

- “北 주민 올해 영양상태 소폭 개선”(10.14)
- 탈북자 6명, 라오스 북부에서 체포(10.17)
- 北근로자 5명, 중동서 밀주·마약 혐의 체포(10.17)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 北 ‘군사접촉’ 南 태도 비난…“고위급접촉 전도 위태”(10/7; 10/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에서의 남측 태도를 비난하고 “일정에 오른 북남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가 엄한 시선으로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또한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상호 총격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서’를 보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이어 매체는 북측이 이번 접촉을 공개로 하자고 했으나 남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접촉의) 전말을 공개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를 보여 주기로 했다”고 덧붙임.

#### ● 北, 박대통령 아셈 발언 실명 비난…“정치적 도발”(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것(박 대통령 발언)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고 밝힘.
- 이어 “박근혜는 입을 잘못 놀리는 그 악습 때문에 북남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가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에 저해를 주는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 北, 연일 대남 압박…“빠라 중지 실제적 조치” 요구(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빠라 살포 광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반공화국 뼈라 살포 망동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날로 격화시키고 무력 충돌과 나아가서 전쟁까지 몰아오는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뼈라 살포 망동이 북남관계에 최악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함.

● “공동선언 이행하면 이산상봉·협력사업도 해결”(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북남 선언들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현 시기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남 선언들이 성실히 이행되면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뿐 아니라 평화 보장과 협력사업 등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사실을 전했으며, 남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힘.
- 이어 뉴스는 김영철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우리 군당국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밝히며 당시 김격식 4군단장과 함께 배후로 지목한 인물임을 전함.
- 매체는 또한 이번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도 2007년 5~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김영철과 함께 참석해 남측 대표단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다고 덧붙임.

● 北,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이틀째 보도 안해...(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군사당국자 접촉 다음날인 16일 정보까지 접촉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뉴스는 이어 북한이 성과 없이 끝난 군사당국자접촉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덧붙임.

● “北, 지난 7일 전통문에서 ‘긴급 단독접촉’ 제의”(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교전과 관련해 지난 7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긴급 단독 접촉’을 우리측에 제의했었다고 16일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10/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참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북한군 10여명이 경기도 파주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km 떨어진 DMZ 내 MDL에 접근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의거해 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사격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실시했다”며 “오후 5시40분께 재차 파주지역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어 북한군이 GP에 배치된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고, 우리 군도 GP에서 기관총 수십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南서 열린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비용 첫 지불(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등의 비용으로 총 19만1천682달러(한화 2억300여만 원)를 지난 3일 우리 측에 지불했다고 16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16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체육대회에 참가해 입춘료 등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먹고 자는 비용은 본인들이 다 지불했다”고 전했음을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금강산 신계사 복원 7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행(10.13,중앙통신)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17)을 통해 대통령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대북발언(北의 진정한 변화 등)에 대해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며 ‘입을 잘못 놀리는 그 악습 때문에 북남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대통령 실명 비난(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北 핵개발 등 병진노선·인권문제 지적 및 국제사회 공동대응’ 등 발언에 대해 “정치청망과니·민족반역자”라고 비난 및 ‘병진노선 정당성’ 강변(10.18, 중앙통신)
- “남조선 군부당국이 선제공격 무력증강 책동에 광분 한다”며 해병대의 고속기동수단을 갖춘 전투부대 추진과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확보 계획 등 KBS 방송 인용 비난(10.18, 중앙통신)
- 韓美안보협의회 개최(새로운 작전계획 개념과 원칙 합의계획, 워싱턴) 예정 관련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 속에 더욱 깊숙이 빠뜨리기 위한 모험전쟁, 냉전확대계획’이라고 비난(10.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중단” 거듭 밝혀 (10/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현지시간) ISIS 홈페이지를 인용해 북 영변 원자로 가동이 일시 중단 되었음을 전했고 “그러나 이는 원자로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어 뉴스는 이 기관이 “영변 원자로는 앞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거는 냉각수의 방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을 보도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 北 신문 “NPT 조약 불필요…美 핵독점 위한 것” 비난(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며 현재 NPT가 “미국 등의 핵 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이 NPT를 한사코 유지해보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핵

불안증, 핵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라며 NPT는 “비핵국가들에만 올라미를 걸어놓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함.

- 매체는 또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한다”라며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있을 때에 그것 번째 대상이었고 지금은 이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중국 매체 통해 서방의 ‘인권 지적’ 반박(10/16, 환구시보)**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자사에 ‘북한 인권보고’ 중문판 전문을 보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고 16일 전함.
- 신문은 북한이 이 보고서에서 “반북(反北) 적대세력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으나 여러 오류들이 있다”며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진상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이어 신문은 북한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치적 목조르기, 군사적 압박, 경제적 고립, 핵 소동 선동 등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그의 추종세력들도 국제사회에서 반북 인권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北, 美 ‘핵사용 계획’ 공언 패네타 회고록 연일 비난(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패네타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지적하며, “미국이 남조선과 우리에게 대한 핵 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 억제 전략’의 완성을 다그치는 때 핵무기 사용계획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핵전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음을 17일 보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6·25 미군 유해 나뒹군다…발굴 중단 美 책임”(10/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척 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9일 미군 유해 발굴이 중단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했으며 발굴 작업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도발로 걸고 든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처사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역사는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미(북미) 쌍방이 합의한 미군 유해 발굴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업조차 무지막지하게 파탄시킨 미 행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두고두고 저주하며 단죄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 **재미 한인단체, 내달 평양서 ‘국제환경포럼’ 개최(10/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6일 미국 뉴저지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단체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OGKM)의 이춘호 사무총장이 내달 19일 포럼을 연다며 “평양 포럼을 통해 북한의 산림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보도함.

**마. 대중국**

● **中시진핑, 김정은에 ‘짧은’ 답전…친선관계 언급 없어(10/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립 기념일(10월 1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 17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도 시 주석이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함께 지난 13일 김 제1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답전을 보내왔다고 17일 보도함.
- 통신은 시 주석이 ‘답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만 전했다는 보도함.

**바. 대일본**

● **납치문제 재조사 논의 관련…와다 하루키 교수 전해(10/1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언제든지 일본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13일 밝혔음을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 北 신문, 유엔 비난…“내정간섭 말아야”(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라며 유엔이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유엔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구인 유엔에 등을 돌려달 것”이라고 덧붙임.

### ● 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회람시켜(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유엔대표부가 1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고 설명회는 15분간 진행됐다고 16일 보도함.
- 뉴스는 또 북한이 초안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했음을 전함.

## 자. 기타 국가

### ●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 “대북제재, 北 변화에 장애물”(10/17, 미국의소리)

-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는 북한 변화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음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콜린 대사가 지난 15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방송은 브라질이 2010년 시작한 북한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축구, 문화 교류, 평양과학기술대학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임.

### ● 방북 뉴질랜드 외교관 “평양 활기찬 모습에 놀랐다”(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에린 던컨 2등 서기관이 지난 1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린 북한 방문기를 인용해 “평양에 머무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분주함이었다”고 회고했다고 17일 보도함.

- 뉴스는 또한 “평양의 많은 주민들은 (외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바빴다”며 원산에서도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묘사했음을 덧붙임.

- 北 철도성대표단(단장: 전길수 철도상), 10월 13일 국제토론회(러시아 소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10.13,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몽골대사(마니바드라힌 간볼드), 10월 13일 강석주(黨비서) 등을 초대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69돌 즈음 연회 마련(10.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위스조선위 위원장과 일행, 10월 13일 「반제민전」 평양지부 방문(10.13, 중앙통신)
- 김정일화전시회, 10월 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막(10.14, 중앙통신)
-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건(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이 부르짖는 ‘만민평등’과 ‘인권옹호’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 코부터 씻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비난(10.14, 중앙통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14일 주북 베트남 신임대사(팜 비엣 흥)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성명(10.16)】 美 전 국방장관 회고록에 수록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계획’ 내용을 거론하며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핵전쟁각본’이라고 비난 및 ‘북침핵전쟁책동 저지’ 투쟁 선동(10.1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駐에리트레아 北 대사 ‘박춘일’, 10월 10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0.16, 중앙방송)
- 베트남-北 친선협회, 10월 16일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10.17, 중앙통신)
- 재일동포조국 방문단(단장 : 박재화, 김룡원), 10월 17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10.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現 시점(남북관계의 개선·파국 갈림길)에서 前 美 국방장관(패네타) 회고록(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계획) 공개는 ‘한반도 핵문제를 부각시키고 괴뢰당국을 부추겨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며 ‘핵억제력 더욱 강화’ 강조(10.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 나훗카 주재 北 총영사관(10.10)과 하바롭스크 주재 北 총영사관지부(10.14)에서 ‘北-러시아 수교(10.12)’ 66주년 연회 개최(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네팔 박타푸르市 친선대표단(10.13 訪北), 10월 18일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당창건기념탑 등 참관(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마수가 청년들에게 뻗치고 있다’며 ‘진보적 나라들의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짓부셔 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동(10.19, 중앙통신·노동신문)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영국주재 북한대사 “김정은 제1위원장 건강하다”(10/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함.
- 공개행보 북한 김정은, 위 축소 수술설(10/14, 데일리메일)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베이징의 병원에 수주 간 머물며 위의 크기를 줄이는 위 밴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어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과체중에 따른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위 밴드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회복 치료를 받느라 비중이 큰 당 창건일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40일 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10/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4일 1~3면에 김 제1위원장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하며, 신문1면에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을 여러 장 실음.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제1위원장이 찾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그대로 터전이 되고 과학자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주춧돌”로 평가함.
- 40일만에 등장한 北 김정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시찰(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 기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라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호사 김은숙 등 20명에게 감사가 전달됐다고 전함.
  - 또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감사를 받은 주민들은 건설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거나 노력지원,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밝힘.

● 北 “정말 뵈고싶었다!”…김정은 재등장 ‘감격’ 선전(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등장에 환호하는 각계 주민들의 반응을 신문 2면 전체에 담아 전함.
- 신문은 16일 2~3면을 김 제1위원장의 재등장에 관한 글로 채우며 ‘햇빛같은 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10월 14일부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 일떠선(건설된) 위성 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뵈었을 때 인민들은 환성을 터쳤다”고 밝힘.
- 신문은 또 ‘인민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군로신일’(君勞臣逸)이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워 김 제1위원장의 ‘노고’를 부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는 신로군일(臣勞君逸)의 역사를 군로신일의 역사로 바꿔놓으셨다”며 “오로지 조국이 부강번영을 위해 발이 닳도록 쉬 없이 전선 길, 현지도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칭송함.

● 北 김정은 사흘 만에 또 등장…건강이상설 ‘불 끄기’(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과 2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양 도심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아파트 현지도 소식과 함께 관련 사진 9장을 게재함.
- 또한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를 둘러보며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고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며 ‘가정 방문’까지 약속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공군 비행훈련 시찰…인천AG 선수도 격려(10/1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 이착륙 훈련을 현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으나 정확한 현지도 날짜는 밝히지 않음.
- 노동신문은 19일 지팡이를 짚고 훈련을 참관하는 김 제1위원장의 사진을 1면에 실음.
-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최학성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장이 이들을 맞이함.
- 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사들이 높은 비행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해 ‘극악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로 비행사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최근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감독들을 만났다고 19일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을 게재함.
-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선수들과 악수를 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진이 실렸다. 김 제1위원장은 선수들과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음.
- 이 자리에는 황병서, 최룡해, 오일정, 한광상, 박명철 최고재판소장, 김영훈 체육상,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종무 군 중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 北 박봉주 총리, 방북 오라스콤 회장 면담(10/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박봉주 동지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 온 사우리스 이집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13일 전했다.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담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 北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예정(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에티오피아, 수단, 콩고 등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을 곧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짧막하게 보도함.

## 다. 공식 행사

### ● 북한 ‘전국도대항 군중체육대회-14’ 폐막(10/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0월 1일부터 열흘간 평양에서 열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체육 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면서 “전국의 12개 도(직할시)들에서 선발된 수많은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참가해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기를 진행했다”고 전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음을 13일 보도함.

### ● 北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준공식 개최(10/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준공식 개최 소식을 전하며 “당의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사회주의 문명국 체모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라고 강조함.

- TV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준공사에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모든 과학자들과 일꾼들이 눈부신 과학 기술 성과로 부강조국 건설 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말했음을 보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北 “체육은 사회의 활력소”…대중체육 활성화 독려(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체육은 온 사회에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고 사람들의 혁명 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힘을 넣어야 하는 것이 체육사업”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특히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것은 체육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를 정치와 군사, 경제 분야에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까지 세계적인 강국으로 떨치시려는 것이 김정은 동지의 뜻”이라고 언급하고 체육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체육인들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함.

- 김일성父子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 함경남도 여러 단위들에 건립(10.13,중앙통신)
- 제6차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식, 10월 1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14,중앙통신·중앙방송)
- 함경남도, 신흥군 삼부연지구에 명승지와 휴양소 건설(10.14,중앙방송)
- 北 내각, 10월 15일 육류관에서 김평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제45차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중국 난징)’ 우승 흥은 정리세광 선수를 위한 축하 연회 개최(10.15,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0.15~16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진행(10.16,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각지 인민들,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역량 집중(10.16,중앙통신)

- '타도제국주의동맹'(「E.ㄷ」) 결성(10.17) 88주년을 맞아 「E.ㄷ」는 노동당의 뿌리이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라며 '모두다 당의 영도따라 「E.ㄷ」의 깃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 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10.17,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인민보안부 군관 박철홍, 경암산 은하피복공장 노동자 림은향 등)에게 감사 전달(10.18,중앙방송)
- 北,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도로포장, 다리 보수, 공원 건설 등)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10.17,중앙통신)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박봉주(내각 총리)·김용진(내각 부총리, 첫째 안건 보고)·임철웅(내각 부총리, 둘째 안건 보고) 등 참석한 가운데 '안건 보고 및 토론' 등 진행(10.18,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욱자 살림집(평양 대동강변) 준공식, 10월 18일 박봉주(내각 총리)·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黨 책임비서)·김승두(교육위원장)·홍수현(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18,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발표(10.16) 20주년 관련 김정일의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 업적" 칭송 및 손민의 "김정은 영도따라 혁명위업 완성" 강조(10.18,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철원 판교·법동군·고성군 봉화리에 건립 및 해당 단위들에서 준공식 각각 진행(10.18,중앙통신)
- 리보익(김일성 조모) 사망(10.18) 55주기 즈음 '이보익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과 反日혁명 투쟁사' 등 칭송(10.18,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창립일('46.10.18) 즈음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난 기간 활동(대중보건위생·구호사업 등) 소개 및 '적십자 국제기구들과 친선협조관계 발전 추진' 강조(10.18,중앙통신)
- 평양시 도로 8만 1,600㎡ 포장 등 "선군문화의 중심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 추진 성과" 및 홍건도간석지 건설장에서 '10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선전(10.1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보내준 선물 전달모임, 10월 19일 최태복(黨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국가과학원에서 진행(10.19,중앙통신)
-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문흥광산, 해발 950m 산중에 '양어장'을 건설하여 후방 사업을 개선(10.19,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 북한 “경제특구 투자자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김정식 과장이 1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북·중 경제무역포럼에서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어 김 과장이 특히 “앞으로 개발구 관련 인원과 물자의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업 환경과 조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 주요 조치

#### ● 북한, 평안북도 동림군 중국인 관광객에 개방(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중이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북한 신의주시·동림군 이틀 관광코스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16일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홍길남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측에서 판쑹(潘爽) 단둥시 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 자리에서 홍인철 북한 국가관광총국 정보조사국 부국장이 “조선(북한)의 관광산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 아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식령 스키장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등 최근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한 자국 내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함.

### 다. 경제 상황

####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상반기 스위스산 담배제조기 부품 수입 대폭 늘려(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5일 코트라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4년 상반기 스위스-북한 무역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 부품품’을 18만 달러(약 1억9천만원) 어치 수입했다고 전함.
  
- **제3회 북·중 종합박람회 단둥서 개막(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랴오닝성 대외우호협회, 단둥시 정부와 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가 올해 박람회에 북한 측에서 100개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단 90여 명과 여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음을 16일 보도함.
  - 뉴스는 또 박람회가 16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단둥 랑터우(浪頭)신개발구 체육관에서 열리는 북한 평안북도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고 전함.
  
- **완공 앞둔 신압록강대교…“개통시점은 불투명”(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신압록강대교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공식적으로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교의 실질적인 개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함.

- 최근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연구 성과들(기계공학연구소 연구집단 등, 우주유압 축기용 피스톤가라지 생산기술 전수 등)이 “인민경제와 과학기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소개 선전(10.15,중앙통신)
-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남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언젠가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한다면 식량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독려(10.16,중앙방송·노동신문)
- 황해남도 농촌들, ‘벼가을’ 완료(10.17,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 탈북자 6명, 라오스 북부에서 체포돼(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라오스에서 활동 중인 한 탈북지원단체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 6명이 16일 낮(현지시각) 북부 루앙남타 지역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17일 전함.
- 뉴스는 이들 가운데 4명은 20~30대 여성, 나머지 2명은 4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라며 각자 개별적으로 북한을 탈출했음을 덧붙임.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 “北 주민 올해 영양상태 소폭 개선”(10/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4 세계 굶주림 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북한의 굶주림 지수는 16.4로, 작년의 18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올해 굶주림 지수는 네팔(16.4), 타지키스탄(16.4), 케냐(16.5), 짐바브웨(16.5)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임.

● **北TV, 여자축구 다른 북한판 ‘우생순’ 3년 만에 재방(10/13~14, 조선중앙TV; 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연속극 ‘우리 여자축구팀’ 제1부를 방영한 데 이어 14일에도 같은 시간에 제2부를 내보냈다고 15일에 전함.

● **“北근로자 5명 증동서 밀주·마약 혐의 체포”(10/1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증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명이 이달 초 밀주 판매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일부는 추방됐다고 17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가구제품·일용품 도안전사회(9.10~12월초까지), 매일 수많은 애호가들과 시민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선전(10.13, 중앙통신)
- 「세계 손 씻기의 날(10.15)」 관련 김철만(도시경영성 국장) 출연,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중요성(건강담보와 온갖 질병들 발생·전파 예방)’ 강조 및 평양(10.15, 경상유치원)과 봉산군(황해북도)에서 행사 진행 전언(10.15, 중앙통신·중앙방송)
- 문수물놀이장 준공(‘13.10.15) 1주년, ‘실내·외 물놀이 및 편의봉사시설’ 등 소개 및 “지난 1년간 88만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청소년학생·해외동포·외국인들 방문 휴식” 선전(10.15, 중앙통신)
-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015.8.24~9.1, 평양 개최 예정) 상징마크와 상징동물 도안(태권도복을 입은 호랑이) 출시(10.17, 중앙통신)
- 北 축구, ‘2014 AFC U-19 챔피언십’에서 일본을 꺾고 준결승 진출(10.18, 중앙통신)
- 전국바둑애호가경기(평양과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녀선수 참가), 10월 18일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개막 및 10월 22일까지 진행(10.18,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0-10.26

10 월

4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군사분계선 총격전 관련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 위협(10.20)
- 北,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분위기 연일 강조(10.21, 10.22, 10.23)
- 北, 25일 예정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지속 비난(10.23, 25)
- 北, 동북아평화협력 포럼 비난(10.24)

2. 핵문제 및 외교

- 北, ‘反 서방 중심’으로 러시아 부각(10.20)
- 北, 특사 없이 美항공편으로 억류 미국인 에드워드 파울씨 석방(10.22)
- 北 유엔 차석대사, 인권 현장실사 논의 가능 언급 및 이례적 적극 대응(10.22)
- 北, ‘유엔의 날’ 맞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거듭 주장(10.24)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안남도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10.22)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26대·제479연합부대의 쌍방 실동훈련 현지지도(10.24)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현지시찰(10.26)
- 北 리수용·리룡남,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10.20, 10.23)

4. 경제

- 北,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연일 언급(10.20, 10.22)
- 北, 제3회 북·중 종합박람회에서 북한 노동력의 장점 적극 홍보(10.20)
- 北, 러시아-북한 교역서 러 통화 루블화 결제 시작(10.20)
- 北,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영구성과 자랑(10.20)
- 北, 평양 도심·교외서 대규모 주택단지 동시 건설(10.21)
- 北, 러시아와 협력해 평덕·평남선 철도 개보수 착수(10.21)

5. 사회

- 北, 에볼라 방역사업 강조(10.24)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 北 “南,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 취해야”(10/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이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과 19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총격전과 25일로 예정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북 남한 당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을 전함.
-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황병서 군 총참모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北 조평통 “빠라 살포하면 남북관계 회복불능 파국”(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 10월 25일로 예정된 국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빠라 살포를 막는가 묵인하는가 하는 것은 대화냐 대결이냐, 북남관계 개선이냐 파국이냐 하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느니 ‘자율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빠라 살포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남측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 北, 남북관계 개선 연일 강조…“대화판 흔들면 안돼” (10/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과연 누가 대화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음 기(2차) 고위급 접촉을 바란다면 말과 행동을 심각하게 해 관계개선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도 21일 ‘우리 민족끼리는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어렵게 마련된 좋은 분위기를 적극 살려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 北, 고위급접촉 ‘조건’으로 대화 분위기 연일 강조(10/2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올바른 대화 자세와 입장부터 갖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의 북남관계 상황에서는 마주 앉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대화를 하겠으면 올바른 대화 자세와 입장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도 23일 ‘자주성이 없으면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화해·단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따르고 민족 공조를 실현하는 것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함.
- 이어 민주조선도 23일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과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 北,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비난…“반복 책동” (10/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은 한마디로 우리의 핵포기와 흡수통일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합작품이며 이번 연단(포럼)도 그런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이 초미의 문제”라며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며,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빠라 살포는 전쟁행위”…정부에 저지 촉구(10/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북남관계의 완전파탄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하는 빠라 살포망동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 후과(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남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해 법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임.
  - 이어 신문은 ‘적대행위 종식은 10·4선언의 요구’라는 글에서도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다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공화국 빠라 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에 단호히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함.
  
- **北 통신 “경찰, 빠라 저지 못 할망정 진보단체 막아”(10/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남조선 각계 반공화국 빠라 살포 망동에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이 대북전단의 살포를 규탄하거나 저지하고 있다고 소개함.
  - 통신은 “이날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빠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MDL 총격전 관련 “예상할수 없는 보복조치” 위협(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일 통일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 자신들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남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음을 전함.
  - 이어 서해 군(軍) 통신선을 통해 20일 오전에 보낸 전통신문에서도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우리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음을 보도함.

● “북한 신형 잠수함, 위성사진으로 확인”(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군사전문에 정통한 조셉 버뮤데즈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북한 잠수함 기지와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실포 남부 조선소의 선박정박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정박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을 20일 보도함.

● 北선박 32척 식별정보 변경…제재회피 목적(10/21, NK뉴스)

- NK뉴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세계 선박 관련 정보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 자료를 조회한 결과 올해 들어 MMSI(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변경한 북한 선박이 32척에 달했다고 전함.
- NK뉴스는 MMSI의 변경은 배의 명칭, 국적, 소유주 등을 바꾼 것을 의미하며, 북한 선박들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윤병세 외교부장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대북발언(北의 핵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 “얼빠진 잠꼬대”라고 비난하며 ‘이들 때문에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찬서리를 맞고 있다’고 주장(10.20, 중앙통신·노동신문)
- 6자회담 수석대표(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對北발언(北은 인권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해야 한다 등) 관련 ‘자위적인 핵과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은 우리(北)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왜곡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10.22, 평양방송)
- 北 「조국통일연구원」, 10월 24일 ‘韓美 당국이 南 민간단체들(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對北 뼈라 살포 주범’이라며 ‘자금지원과 살포기술 제공’ 등 주장 ‘백서’ 발표(10.24, 중앙통신·평양방송)
- 現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제2차 고위급접촉 합의) 아니면 극단으로 치닫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南 당국의 분별있는 처신’을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북전단 살포는 '북남관계의 파국은 물론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北)의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 위협(10.26, 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反서방 중심'으로 러시아 부각 주목 (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토의 무력창설 움직임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을 크게 부각함.
- 北 '유엔의 날' 맞아 "안보리 개혁해야" 거듭 주장(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은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유엔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주장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 北, 특사 없이 美항공편으로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 석방(10/22, AP통신; 조선중앙통신)

- AP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새벽 시간에 평양 순안공항으로 간 미국 군용기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를 태우고 미국령 괌으로 이동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22일 보도를 통해 추방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번 석방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취한 특별조치라는 점을 강조함.

### ● 北 국방위, 美 인권공세 비난…‘강력대응전’ 천명(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가 25일 성명에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미국의 ‘인권 소동’에 대한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포고한다며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력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새로운 대응과 관련해 “강위력한 핵무력과 지상, 해상, 수중, 공중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첨단타격 수단들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함.
- 이어 “이 기회에 미국 주도의 침략공조를 거센 반미공조로 짓부셔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 마. 대중국

###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 유엔 北 차석대사 “北 인권 현장실사도 논의 가능”(10/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22일 보도를 통해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화’를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인권 실태의 현장실사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 북, 인권 문제 비판에 이례적 적극 대응 (10/22, 뉴스위크)

- 뉴스위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외에도 북한 외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위해 파견한 최영남도 참석했음을 전함.
- 이어 이들이 장시간 계속된 토론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마이클 커피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장 등을 들으면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자. 기타 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前 美 국방장관(패네타)의 회고록 내용(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또 하나의 엄중한 대조선 핵위협 증거”라며 ‘우리(北)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책동을 박살내는 순간까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10.20,중앙통신)
- 미국의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민간인 8명 사망, 6명 부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반테러전’이 인권유린, 인간 살육전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중죄인’이라고 비난(10.20,중앙통신·노동신문)
- 北-美 ‘제네바 합의’ 20주년(10.21) 관련 現 ‘北-美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처하게 된 것은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지속 때문’이라고 ‘미국의 反北정책 포기 등 태도변화’ 주장(10.21,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해군이 새로 개발한 무인 로봇 초계정의 말라카 호르무즈해협 등 실전배치(美 군함호위 등) 계획에 대해 “국제적인 주요해상통로들을 장악하고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노린 것”이라며 ‘미국의 신무기 개발·군사적 패권전략’ 비난(10.21,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본토 주둔 8기갑연대 3대대를 동두천 등에 순환배치하려는 계획 관련 ‘범죄적인 무력개입으로 저들의 지배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駐韓美軍철수 주장(10.22, 평양방송)
- 리수용(외무상), 10월 23일 신임 주북 스웨덴 대사(산러브 보 토르켈)와 담화(10.23, 중앙통신)
-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 10월 23일 ‘노동당 창건’(10.10) 69주년을 즈음하여 강석주(당 비서) 등을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10.23, 중앙통신)
- 「유엔의 날(10.24)」 관련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책임성·공정성·객관성 보장과 개발도상국들의 대표권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 결단’을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방송)
- 前 美 국방장관 ‘패네타’ 회고록(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지속 거론하며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그 해결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며 ‘北, NPT 탈퇴·핵보유 정당성’ 주장(10.24, 평양방송)
- ‘독일-북한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무트 코슈크) 일행, 10월 24일 訪北(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국방위 성명(10.25)에서 미국의 北 인권공세 관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포고(10.25,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또 과학자 복지시설 시찰...‘과학중시’ 과시(10/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박명철 전 체육상,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함께 건설부대 지휘관 로경준·김진근, 장철 국가과학원장, 김운기 국가과학원 당 책임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들어선 과학자 복지시설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연풍과학자휴양소가 북한군 제267부대가 맡아 4개월여 만에 완공되었다고 설명했으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종합봉사소, 휴양각, 휴식터, 산책로, 다용도 야외운동장 등 휴양소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며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잇단 軍부대 시찰…연합 실동훈련 참관(10/2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을 지도”했음을 전함.
- 통신은 이번 군사훈련 지도에 최룡해 당 비서와 오일정 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감시소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나서 “오늘 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싸움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정황이 조성될 수 있다”며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현대전’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북한군의 ‘실동훈련’이 우리 군의 실기동훈련(FTX)에 해당하고 쌍방 실동훈련은 2개 부대가 실전 상황을 가정해 공격과 방어 연습을 하는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완공된 평양 육아원·애육원 시찰(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육아원·애육원 방문에 최룡해·김기남 노동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건설부대 지휘관인 로경준·김진근이 안내했다고 전함.
- 여전히 지팡이를 짚은 김 제1위원장은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둘러보며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며 만족을 표시하고 “이런 시설을 꾸려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원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육교사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수용, 방북 러 극동개발부 장관 면담(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함.
- 北 ‘체육계 거물’ 박명철 다시 등장…김정은 수행(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 소식과 함께 게재한 사진에서 인민복 차림으로 서 있는 박 전 체육상의 모습을 전함.
- 北 리룡남, 방북 러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23일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전함.
  - 통신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다. 공식 행사

- 北 ‘오백룡 생일 100돌 잔치’…항일빨치산 우대 전통(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2면과 3면에 걸쳐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전날 열린 ‘오백룡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대해 보도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김정임 당역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연설했다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인권문제 전방위 반격...‘김정은 구하기’ 나서(8/15, 사회과학원 학보; 10/26,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4년 8월15일 발행)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당사자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제인권법으로 개인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논문은 “국제인권법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법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는 국제인권법 규정에서 합의된 권리·의무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실행한다”고 설명함.
-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가라며 “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1일 故 박영순(만수대예술단 고문·인민배우) 빈소에 조화 전달(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전하는 살림집 이용증서 수여 모임, 10월 20일 대학체육관에서 최태복(당 비서)·김승두(교육위원장)·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1, 중앙방송)
- 제25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10월 2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최태복·김용진(내각 부총리)·김승두·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아프리카 순방길 북한 김영남, 베이징 도착(10/21,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0월 22일 駐北 신임 베트남 대사와 담화(10.22, 중앙통신)
- ‘도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인민을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수는 필수적 요구’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10.23, 중앙통신·노동신문)
- 회령혁명사적관 창립(74.10.24) 4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23일 전승훈(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23, 중앙통신)
- 故 오백룡(前 黨 군사부장) 생일(10.24) 100주년 즈음 최룡해(黨 비서)·현영철(인민무력 부장)·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석, 10월 24일 ‘오백룡 반신상(대성산혁명열사릉)에 헌화(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연풍과학자 휴양소 준공식(※김정은 현지도, 10월 22일 보도), 10월 24일 김기남·최태복(黨 비서)·박태성(평안남도 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4,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3일 수단 도착 및 대통령(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과 회담(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외, 강하국(보건상), 궁석웅(외무성 부상), 서길복(대외경제성 부상), 김혁철(駐수단 北대사) 등 참가(10월 24일 수단 민족회의청사에서 민족회의 의장과 담화 및 연회 참가(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김룡원), 10월 25일 귀국(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 10월 25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를 한 교원·연구사가정들을 찾아 축하(10.25, 중앙통신)
- 北 철도성 대표단(단장 : 전길수 철도상), 10월 26일 러시아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 참가 후 귀환(10.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 최룡해·김기남(黨 비서들), 한광상(黨 부장), 리재일(黨 제1부부장) 동행, 현지에서 마원춘(국방위 설계국장인 육군 중장), 로경준, 김진근 등이 맞이(10.2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 故 계훈경(인민예술가,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北 신문 “모든 일에 과학기술 활용 실적 개선” 독려(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나그쳐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무슨 일이나 과학적 기초 위에서 설계하고 작전하며 과학적 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해 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함.
  -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넣으며 교육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 부문에서도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과학기술 이용 경제적 실리 극대화해야”(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며 “실리를 따지지 않으면 밀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나아가서 국가가 커다란 인적, 물질 손실을 입게 되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힘.

- 이어 “경제사업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자면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해야 한다”며 “마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객관적 법칙에 관계없이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흑심한 주관주의이며 과학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함.

## 나. 주요 조치

### ● 北 ‘과학중시’ 열풍 속 대학 연구성과 자랑(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각지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 들어가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성과를 소개함.

### ● 北, 평양 도심·교외서 대규모 주택단지 동시 건설(10/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평양시) 용성·서포·역포 철길 주변 살림집(주택) 건설에 펼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건설자들의 열의에 의해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며 골조공사는 64%, 마감공사는 60% 정도 다다랐다고 전함.
- 방송은 또 형제산구역 서룡동지역 주택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은 이달 말까지 2천 200여 가구의 골조공사를 전부 끝내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웠고 역포지구에서는 올해 입주 계획 가구의 주택 공사가 90% 마무리됐다고 보도함.

### ●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 마무리 단계(10/22, AP통신)

- 미국 AP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2청사 건설이 마무리 단계이며, 공항 건설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최단시간에 끝내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는 ‘속도전’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함.
- 통신은 평양이 항공편을 통해 ‘은둔의 나라’인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공항은 큰 창고 크기 규모의 임시 터미널과 단 하나밖에 없는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자그마한 면세점 및 서적·기념품 가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함.

## 다. 경제 상황

### ● 평양에 택시급증…1천대 훌쩍제 운행(10/21, 지지통신)

- 지지통신은 21일 보도에서 북한을 다녀온 학자인 동아시아학 연구자 아라마키 마사유키(46, 荒卷正行)를 인용해 평양에 택시가 급증해 북한 당국이 훌쩍제로 운행 대수를 관리하고 있음을 전함.
- 이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조사 한 결과 “택시업계에 새로운 외국자본이 참가해 단번에 대수가 늘어났다”며 “여명기였던 업계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수요에 맞춘 도태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함.

### ● 북한서 달러·엔화로 물건 사면 위안화로 거스름돈(10/26, 연합뉴스)

- 26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근 학술 교류단의 일원으로 1주일간 북한에 다녀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23~24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머리를 말총처럼 뒤로 묶는 이른바 ‘포니테일’ 스타일이나 하이힐이 유행하는 등 북한 사회가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평양에 택시가 대량으로 보급됐고 출퇴근 시간에 정제 수준은 아니지만, 차량이 꽤 많이 다니는 등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힘.
- 이어 평양에서 달러나 엔화로 물건을 사면 위안화로 거슬러 줄 정도로 중국 화폐 사용이 보편화했고 북한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에도 중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북한이 작년에 전년도보다 30만t 늘어난 566만t의 곡물을 생산했고 올해는 가뭄을 겪었음에도 비슷한 정도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고 식량 상황을 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 北, “인구 절반 준비된 노동력”…중국기업에 ‘손짓’(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해 20일 막을 내린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박람회 기간 중국기업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음을 2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에서 공개한 홍보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잠재력이 튼튼히 준비돼 있다”면서 “무상 의무교육 제도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임의의 직종에 적용할 수 있게 준비된 노동력이 2008년 기준으로 1천217만 6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며, “중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 파업, 태업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을 보도함.
- 이어 북한이 이번 박람회에서 현재 자국에 국가급 경제특구가 9곳, 각 도(道)의 지방급 경제특구가 16곳이 있다고 홍보했음을 전함.

● 러시아-북한 교역서 러 통화 루블화 결제 시작(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올린 20일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제6차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합의에 따라 루블화 결제를 시작했다”며, 20일 부터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방북 기간 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러시아와 협력해 평덕·평남선 철도 개보수 착수(10/21, 조선중앙통신; 러시아의소리)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재동역(평안남도 은산군)~강동역(평양시 강동군)~남포역(남포시) 구간 철도 개건 착공식이 21일 동평양역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러시아의소리방송도 21일 착공식 소식과 함께 ‘포베다(승리)’라는 명칭이 붙은 이번 북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250억 달러(26조 3천 625억 원)라며 “새로운 구간의 철도 건설 작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화물 운송을 위해 남부 간선과 북부 간선이 평양을 우회하도록 계획했다”고 소개함.

- 평안북도 창성군 일꾼들과 근로자들, 수백 톤의 ‘산열매’(도토리, 다래, 머루 등) 수확성과 선전(10.20, 중앙방송)
- 제3차 北-中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10월 16일~20일 중국 단둥에서 ‘北-中 경제무역합작투자설명회 및 항목 조인식’ 등 진행(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선희(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장), 지난 해 “보충영양원 개발과 10여개 버섯 품종 개발 등 과학연구사업 성과” 선전(10.21, 중앙통신)
- 전국 제염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0월 22일 남포시 온천군에서 진행(10.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인쇄부문 과학기술발표회(70여건 논문 발표), 10월 23일·24일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개최(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태양빛자동추적장치”의 성능시험(중전 전력생산 1.3배 증가) 등 선전(10.24, 중앙통신)
- 北 경제대표단(단장: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 10월 25일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평양시의 도로보수 및 주변정리 등을 소개하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10.26, 중앙통신)
- 평양시, 170동의 박막온실 내·외부 기본공사와 40여 동의 소총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10.26, 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노동신문 “에볼라 방역 급선무…보건 개선해야”(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6면에 실린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적 확산 우려를 낳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방역사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낙후한 보건 분야의 개선을 독려했.
  - 이어 신문은 ‘죽음의 병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해 이 병(에볼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北 축구선수들, '2014 AFC U-19 챔피언십' 준결승전(10.20)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이기고 결승 진출(10.21, 중앙통신)
- [공화국선수권대회(평양과 각지에서 11월까지 40개 종목)] 진행 및 사격·양궁·수영 종목에서 "5개의 공화국 신기록 수립" 등 10월 20일 현재, 경기 결과 보도 (10.21, 중앙통신)
- 전국 바둑애호가 경기, 10.18~22 태권도전당에서 진행(10.22, 중앙통신)
- 제45회 예술인체육대회(축구·농구·씨름 등 20개 종목), 10월 2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박춘남(문화상)·안동춘(문예총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6명(김은국·엄윤철·김광민·라은심·허은별·박기성)과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리세광에 훈장 표창 (10.25, 조선통신)
- 김책공대 교직원 학생들, 10월 25일 '김정은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껌기모임 진행 (10.26, 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7-10.31

10 월

5주차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전단 빌미 고위급접촉 압박강화(10.27~29)
- 北,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연일 비난(10.29, 10.31)
- 잠수함발사미사일 기술 개발 추정(10.28)
- 北, 국내 스마트폰 해킹시도(10.29)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외무성, EU ‘인권결의안’에 대해 경고(10.28, 10.30)
- 北, 美 인권공세에 거듭 반박(10.28)
- 北, 일본과 평양에서 납치문제 협의(10.28~29)
- 北, 에볼라 이유로 스페인 기자 입국 거부(10.28)
- 조선 외무성과 우간다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10.31)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발목 낭종제거 수술(10.28)
- 김정은 黨 제1비서, 女 축구 관람(10.29)
- 김정은 黨 제1비서, 비행 군사 훈련 참관(10.30)
- 북한공작기관 ‘225국’ 책임자 강관주 사망(10.31)

**4. 경제**

- 北, 베트남에 투자 요청(10.31)
- 청수관광개발구 ‘관광개통식’ 개최(10.31)

**5. 사회**

- 北, 에볼라 차단 위해 한약 예방약 개발(10.30)
- 北, 에볼라 예방 위해 외국인 입국자 격리(10.30)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김정은, 문화유산보호 강조…“남북·국제 교류해야”(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과 한 담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단군의 후손들”이라며 “온 겨레가 민족 중시의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 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해 단국조선의 역사를 빛내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대외에 소개·선전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전단 벌미 압박강화…30일 고위급접촉 불투명(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남북관계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남조선이 대화 상대방을 헐뜯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을 계속한다면 북남관계의 대동로는 고사하고 열린 오솔길마저 끊기게 될 판”이라고 주장함.
- **北 매체, 고위급접촉 확대 없이 연일 관계개선 촉구(10/28,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28일 ‘관계개선과 비방중상은 양립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비방중상은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불신의 표시”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이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자면 뉘니뉘니해도 비방증상이 시급히 중지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남측이 “오해와 불신, 적대감을 유발하는 비방증상을 당장 중단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28일 ‘안팎 다른 언동으로는 검열받지 못한다’, ‘왜 심사숙고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은 시대와 민족, 역사 앞에서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라며 남측에 진정성 있는 관계개선 노력과 실천적 행동을 촉구함.

● 北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동족대결책동…철회해야”(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꺾어버리고(합부로 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남북대화, 각계층 요구 반영해야”(10/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북남 사이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라며 “따라서 북남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며 모든 것을 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 제의했다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지켜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南, 전단살포 방임…고위급접촉 이뤄질수 있겠나”(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26일 남한측에 보내온 것으로 27일 통일부에서 밝혔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힘.

● 30일 2차 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北 “南선택 달려”(10/29,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을 전함.
- 이어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을 연합뉴스는 보도함.

● 北, ‘서해 軍통신선’ 활용 집중 의도 주목(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 간 주요 사안에 대해 전통적인 남북 당국 간 연락체계인 관문점 채널 대신 서해 군 통신선을 활용한 연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뉴스는 북한이 관문점 채널 대신 서해 군 통신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통일부를 제치고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 기술 개발 추정”(10/28, 38노스; 연합뉴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가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포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이 위성사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는 전함.
- 이어 신문은 발사대 모양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며, 나아가 군함이나 상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버뮤데스가 밝힌 것을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 국정원 “北, 국내 스마트폰 해킹 시도 정황”(10/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이 올해 들어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에 해킹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유포를 시도해 약 2만여 대의 스마트폰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음을 보도함.

### ● 北 유소년축구단, 내달 2일 국제대회 참가차 방한(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민간단체 남북체육교류협회가 11월7~9일 경기도 연천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의 4·25체육단 유소년축구단이 출전한다고 30일 밝혔음을 전함.

- 우리 정부의 “양면주의적 술책(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북핵문제 등 지적과 對北 빠라 살포·NLL 등 총격전)”을 주장하며 現 남북정세 下에서는 “북남관계의 대통로는 고사하고 겨우 열린 오솔길마저도 끊기게 될 판”이라고 ‘남측의 태도 변화’ 촉구(10.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남북간 서해 NLL(10.7)과 MDL(10.18·19) 인근 군사적 충돌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영영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죄악”이라고 ‘남측 책임’ 전가 비난(10.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군사주권을 외세에 내맡기는 희세의 매국역적행위,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체질적 악습, 친미굴종 의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 및 ‘강력한 대응’ 위협(10.3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北 외무성 “EU ‘인권결의안’ 채택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외무성이 30일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30일 보도함.

- 특히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이러한 장단에 추종하여 EU가 끝내 지난 시기보다 더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인권 문제에서 우리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후과(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보도함.
- 외무성은 이어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 北 신문, 日 각료 잇단 야스쿠니 참배 비난(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군국주의 야망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행동을 계속하며 군국화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이라며 일본 고위 인사들의 최근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함.

### ● 北, 美 인권공세에 “사실 왜곡” 거듭 반박(10/2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의 비열한 인권소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제목 아래 4개의 논평·논설 등 기획 기사를 실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미국 등의 지적을 강하게 비난함.
- 특히 미국 등이 비판하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관련, “구태어(굳이) 설명한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정당한 조치”라며 “미국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이라고 강변함.
- 민주조선은 ‘절대로 통할수 없는 어리석은 모략소동’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로 북한의 사상·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미국이 인권문제를 우리를 압살하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상 우리도 이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힘.

### ● 조선신보 “日 일부 세력, 북일회담에 찬물”(10/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조일회담의 원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일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또다시 일본의 일부 세력과 언론매체들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납치 문제를 북일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하자는 주장은 ‘근본’(본질)이 틀렸다고 “조일회담의 기본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진행중인 회담은 조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태는 또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함.

- 北 신문 “나라들이 교류하면 경제 성과 거둘 수 있어”(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라들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협조한다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민족경제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난 3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나미비아를 방문해 ‘관광분야 협조 양해문’ 등 조약 11건을 체결하고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8월 러시아를 찾아 무역, 군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조선신보 “억류자 석방, 북미대화 재개 마지막 기회”(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 ‘억류범죄자 석방조치 이후의 조(북)미관계’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미국 범죄자 석방조치는 2기 오바마 정권에서 사실상 조미대화 재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포기를 자기 행동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는 조선과 협상 탁에 마주앉으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미 국무부 “파울 석방으로 북핵정책 바뀌지 않아”(10/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의 석방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을 29일 보도함.
  - 뉴스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38노스’의 발표에 대해 모든 관련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함.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 일본 정부당국자, 납치문제 관련 10년만에 방북(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조사상황을 청취하려고 방북했음을 보도함.

### ● 북한-일본, 평양서 납치문제 협의 개시(10/28, NHK; 교도통신)

- NHK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협의에 일본 측 당국자 12명, 북측 당국자 8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북측 참석자 중에는 특별조사위 산하 납치문제 분과의 책임자인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도 포함됐다고 28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27일 방북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 때 “일본은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재조사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전함.

### ● 북한, 과거 납치조사 미비점 인정(10/31, 교도통신)

-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28~29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과거에 이뤄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 현재 납치문제 재조사를 담당하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간부는 2002년과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이 내놓은 납치문제 조사 결과에 관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 특수기관에서 나온 일면적인 것이었다”고 북일 협의에서 밝혔다고 교도는 전함.
- 북한 측은 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치분과로 (사안을) 보내 더욱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사. 대러시아

### ● “러시아-북한 비자면제 문제 논의 착수”(10/28, 리아노보스티통신)

-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지난 20~2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 일정에서 무비자 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음을 28일 보도함.

## 아. 국제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 北 ‘돈세탁 위험국가’ 재지정”(10/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단속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됐다고 전함.
- **“北 외국인 입국금지, 유엔 대북사업엔 영향 없어”(10/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프랜시스 케네디 본부 대변인은 “북한 사무소로부터 출입국과 관련된 이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평상시와 다른없는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RFA를 통해 밝힘.
- **다루스만 “북한 인권, 안보리에서 조치해야”(10/2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 주장함.
  - 다만,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음을 뉴스는 전함.
- **다루스만, 북측 인사와 또 회동…미국, 방북 조건부지지(10/29, AP통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미 동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참사관’을 만나 자신의 방북문제를 논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두 번째 회동결과에 대해 자신의 방북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면서도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무됐다고 설명함.

● **北 대표부 “미국에 인권대화 제의했으나 거절당해”(10/29, 미국의소리; 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를 30일 보도를 통해 북한 유엔대표부 김 성 참사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한다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유럽 연합측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물음에 “열흘 전 유럽연합 측을 만나 유럽연합 초안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설떠름(떨떠름)한 답변만 들었다”고 전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유럽연합 유엔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유럽연합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EU, 北 요청하면 북한인권결의안 수정 검토”(10/30, 미국의 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결의안 초안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북 “인권결의안 수정시 EU인권대표 3월 방북 허용”(10/31, 연합뉴스)**

- 북한이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을 허용하겠다고면서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을 거듭 압박했다고 연합뉴스는 31일 전함.
- 뉴스는 김은철 북한 외교관이 30일(미 동부시간)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냈다면 방북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을 전함.
- 그러나 그는 EU가 추진하는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부분이 주말까지 삭제되지 않으면 람브리니스 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방북 초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 **다루스만 “北인권결의안 수정 조건 방북 안해”(10/31, 자유아시아방송)**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삭제를 조건으로 방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北 외국인 입국자 격리 관찰 방침에 EU 방북 연기(10/3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EU 대외관계청(EEAS) 일행이 EU와 북한 간 정치 대화 차원에서 다음 주로 예정한 방북을 미루기로 했다고 EEAS 대변인이 31일 밝혔음을 보도함.

## 자. 기타 국가

- **북한 “스페인인 에볼라 위험국”…스페인 기자 입국 거부(10/28, 연합뉴스)**
  - 북한이 스페인이 ‘에볼라 위험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스페인 국적 기자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네덜란드인 대북 사업가가 27(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北 김영남, 콩고 대통령과 회담…친선강화 논의(10/29,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드니 사수 은게소 콩고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북한 측에서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최철수 콩고 주재 임시대리 대사가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영남, 우간다 대통령과 회담…“친선관계 발전”(10/31,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우간다의 대통령궁전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회담에는 북한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명경철 우간다 주재 대사와 우간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배석함.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7일 이집트 대통령(압델 파타 엘시시)에게 최근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위문 전문(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중혁(北-독일친선의원단위원장)↔하르트무트 코쉬크(독일-북한의원단위원장) 회담, 10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체코 대사, 10월 27일 ‘국경절’ 즈음 리길성(외무성 부상)·리광근(대외경제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문재철(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7일 콩고 도착 및 10월 26일 수단 출발 소식 보도(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10월 26일 수단 방문일정을 마치며 同國 대통령에게 감사 전문(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28일 ‘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무트 코쉬크)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8,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0월 28일 작별 방문한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와 담화(10.28, 중앙통신)

- 주한미군이 3년 전부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를 가정한 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해 왔다'며 '미국의 사드 구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0.29,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0월 29일 신임 주북 폴란드 대사(크지슈토프 체벤)와 담화(10.29, 중앙통신)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국정원 “김정은 9~10월 발목 낭종제거…재발가능성”(10/2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인용하여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2주 전 다리를 절며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왼쪽 발목에 낭종(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28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국정원이 김 위원장은 현재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고도 비만과 무리한 공개 활동 등으로 인해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고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女축구 관람…최룡해,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번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 최룡해 당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 당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강석주·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비행훈련 참관…최룡해 또 가장 먼저 호명(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만에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다”고 밝힘.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 “북한공작기관 ‘225국’ 책임자 강관주 사망”(10/31, 산케이신문)

- 북한의 대외 공작기관인 내각 225국 국장을 지낸 강관주(78, 가명 강주일)가 이달 초 사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함.
- 산케이는 복수의 북한·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강관주가 암을 앓다 지난 3일 사망해 5일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7일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전함.
- 강관주의 사망으로 그의 ‘개인상점’으로 불려온 225국은 대남공작부서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재편될 공산이 커졌다고 산케이는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故 계훈경(인민예술가,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10.27,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육아원·애육원(※김정은, 10월 25일 현지지도) 준공식, 10월 27일 김기남·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7,중앙방송·중앙통신)
- 5월1일경기장(15만석) 준공식, 10월 28일 최룡해(黨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준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9,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원도 성산역 개건 준공식 10월 27일 최영건(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7,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동맹」 중앙위 제5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0월 28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0.28,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黨 비서),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 하에 제25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0월 2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28,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 현지요해(10.29,중앙통신)
- 최태복, 양형섭, 김용진(내각 부총리/보고) 참가한 김정일 단군릉 현지지도('94.10.29) 2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0월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9,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지원한 일꾼-근로자들(박성옥, 상업성 산하단위 지배인)에게 「감사」 전달(10.30,중앙방송)
- 중앙통계국 중앙계산소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10월 31일 진행(10.31,중앙방송)
- 봉학식료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0월 31일 리효복(평안남도당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31,중앙통신)
- 김일성父자의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부령군·성간임산사업소·형제산 능라도피복공장에서 진행(10.31,중앙통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北, 압록강 인근 평북 '청수개발구' 관광 개시(10/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청수관광개발구 '관광개통식'이 30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인민정부, 단둥해외여행사유한공사의 협조로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함.
  -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의 곽진호 국장은 중앙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당장은 이미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관광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고 밝힘.

● **北, 연안 개발 대비 ‘바다오염방지법’ 대폭 강화(10/22, 민주조선, 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0월 22일 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바다오염방지법’을 수정·보충해 공표했다고 밝힘.
- 개정 바다오염방지법은 6개 장 60개 조로 구성됐다고 민주조선이 설명함.
- 신문은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며 “해안 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 건설에 앞서 바다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개정법은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국가적인 오염 방지 체계 수립, 수질보호구역 지정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해안 지역 기관별로 ‘해안관리구역’을 설정해 오염 방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민주조선이 밝힘.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베트남에 투자 요청…‘구매공세’ 강화(10/3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베트남 언론을 인용하여 31일 북한·베트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차 하노이를 방문한 문철 북한 대외경제성 부국장이 북한의 투자 환경과 협력 대상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투자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 평양 전자의료기구공장 등 보건성 산하 각지 의료기구공장 일꾼·노동자들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 선전(10.27, 중앙방송·노동신문)
- 용원리역·배산점역(평안남도) 개건 준공식(연풍과학자 휴양소 휴양생 등 이용), 10월 30일 각각 진행(10.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자강도 강계포도수출공장 개건 및 ‘생산능력 종전 대비 3배 이상·제품의 질 획기적 향상’ 등 선전(10.30, 중앙통신)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풀씨파종기” 개발 및 ‘가동(세포등판 축산기지) 능률(골 파가→시바→씨앗 파종 등 동시 수행, 파종 구간 임의조절) 등 선전(10.30, 중앙통신)
- “먼적외선 경량단열 벽돌”의 경제적인 실리(온도 상승·열처리시간 종전 대비 절반 단축, 전력 50% 절감 등)도 선전(10.30,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식물영양 강화제를 대량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새 기술을 확립했다’고 선전(10.31,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뿔성부른 떡잎 찾자”…北 ‘과학적 소질개발’ 관심(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에 개인의 체질과 기초 체력을 측정해 배구 종목에 가장 적합한 선수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북한의 프로그램을 소개함.
  - 이 프로그램에는 “운동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해 육체적 특성, 지능 정도 등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설정돼 있고 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성장 과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함.
  - 이어 “이 프로그램이 자식을 잘 키워보려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며 평안북도 신의주 김금순초급중학교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에볼라 차단 ‘총력’...“한약 예방약 개발사업”(10/3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30일 국경 지역에서 에볼라 검역이 강화됐으며 “모든 출장자들에 대해 20일간의 의학적 감시를 철저히 진행하고 환자들을 제때 찾아내기 위한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에볼라 예방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항비루스(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고려약(한약)들을 이 질병의 예방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함.

● 北, 에볼라 예방 위해 외국인 입국자 21일간 격리(10/30, 연합뉴스)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를 21일간 격리 수용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30일 보도함.
- 뉴스는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별개의 시설에 수용되며,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호텔 등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전함.
- 다만 북한 당국은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이 입국할 경우 북한 내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외국인 페이스북·트위터 접속 전면 차단(10/30, 타스통신)

- 북한이 외국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평양 주재 타스통신 특파원이 30일 밝힘.

- 北 「조선원」, 10월 25일 ‘2014 청도세계원예박람회(中 산동성 청도시) 야외 전시원경쟁 금상’ 수상(10.27,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에서(10.14~26) AFC(아시아축구연맹) ‘A급감독 자격강습(AFC 강사 ‘아데쉬르 포우네마트 노데이’, B급감독 자격 20여명 참가)’ 진행(10.27,중앙통신)

9·10월

북한동향 일지

<9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9.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8일공장 건설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
9.2,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월 2일 러시아 연방평의회 1부위원장(알렉산드르 토르신)과 담화
9.4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3일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 관람
9.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에 선물 전달
9.8, 중방·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8일 북-일 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과 담화
9.10, 중통·중방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8일 독일사회민주당 국제위 위원장(닐스 안넨)과 회담 및 독일외무성 대표등과 담화
9.10, 중방·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10일 日 교통통신사 대표단과 담화
9.1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남오 빈소에 화환 전달
9.11, 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요해
9.11, 중방·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11일 러시아연방평의회 1부위원장(알렉산드르 토르신)과 담화
9.12,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권남오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9.12, 중방·중통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9일~10일 벨기에 방문 및 유럽의회와 유럽동맹관계인사들과 담화
9.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통근버스를 선물
9.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향숙 등 “5월1일경기장 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9.14,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선교구역 채과도매소 노동자 김은숙 등에게 감사 전달
9.14, 중방·중통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11일~13일 스위스방문기간 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서기와 회담 및 외무성 국무비서·前 대통령(파스칼 쿠슈팽)과 각각담화
9.15, 중통	김용진(내각 부총리) 9월 15일 北 내각이 ‘2014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양경일’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연설
9.16, 중통·평방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월 16일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나라 국제기구, 해외동포 대표단 단장들과 담화
9.17, 중통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14일~16일 이탈리아 방문기간 중 이탈리아 국회 상원 부의장·이탈리아 공산당 총비서 등 국회관련인사들과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과 각각 담화
9.17, 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17일 ‘北 정권수립’ 66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총하단(단장: 허종만 총련의장)과 담화
9.17, 중통	리수용(외무상), 9월 15일 이란부통령·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총서기와 이란·팔레스타인·스리랑카·요르단의 사법상들과 담화

보도일자	내용
9.17, 중통	리수용(외무상), 이란대통령(하산 로하니)와 담화
9.19, 중방·중통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18일 몽골 대통령(차히야 엘벡도르치) 및 수상(노로빈 알땅후야그)과 담화
9.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청년동맹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전달
9.20,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9.22, 중방·중통·평방	박봉주(내각 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과의 석탄매장량과 생산실태 현지요해 및 평양지하철도와 평양1백화점 시찰
9.22, 중통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9월 20일 몽골인민당 대표단과 회담
9.22, 중방·중통	리명산(대외경제성 부상), 9월 22일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박람회(9.22~25) 개막식에서 축하연설
9.22, 평방	리수용(외무상), 9월 21일 유엔총회 제69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도착
9.22, 중방·중통	박응식(국제전람사 사장), 9월 22일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박람회(9.22~25) 개막식에서 개막연설
9.24,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9.2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의 모범적인 인민반장들에게 감사전달
9.29, 중방·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29일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과 담화
9.29, 중통	리수용(외무상), 9월 27일 유엔총회 제69차 회의에서 '연방제통일방안' 주장 등을 담은 연설

<10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0.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국, 리극강국무원 총리, 장덕강 전인대상무위원장에게 '중국 창건' 65주년 축전 발송
10.1, 중방·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1일 駐北 스웨덴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
10.2, 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0월 2일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과 담화
10.2,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신설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선물전달
10.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일 리재룡(비전향장기수)에게 70회 생일상 전달
10.3, 중방·중통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10월 3일 2014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참석 및 축하연설
10.3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일 러시아와 부수상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사(유리 트루트네프)와 담화
10.4 중방·평방	황병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노동당 비서), 김양건(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인천방문
10.6,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과 배천군 추진협동농장의 '농사실태'현지요해 및 순천 석회석광산 및 성산광산의 생산정형 요해
10.7,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10월 6일 당중앙위원회 및 국방위원회가 '제 17회 인천 AG참가자들을 위해 개최한 환영연회에서 연설
10.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혜경(개성시 거주)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
10.10, 중방·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10일 러시아 사할린주를 방문하여 주장관대리를 만나 담화 및 수산물가공공장 등을 참관하고 귀환
10.14,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도 및 국가과학원 자연과지연구소 시찰
10.14, 중방·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14일 駐北 베트남 신임대사(팜 비엣 흥)와 담화
10.1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10.1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현지도 및 군 제267군부대에 감사
10.16, 중방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10월 16일 통일러시아당 연해변강지부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10.1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0.1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제17회 인천AG'와 최근 진행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 선수·감독들 면담 및 연회 마련
10.1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 이착륙 비행훈련 지도
10.20,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0일 러시아 원동발전상(알렉산드르 갈루슈카 北-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과 담화

보도일자	내용
10.2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1일 박영순(만수대예술단 고문)빈소에 조화 전달
10.21,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1일 駐北 스위스 대사와 담화
10.21,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1일 駐北 신임 베트남 대사와 담화
10.22,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연풍과학자 휴양소 현지지도 및 군인건설자와 주변정리 군부대들에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
10.23,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3일 駐北 신임 스웨덴 대사와 담화
10.24,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 훈련 지도
10.25, 중통·중앙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4일 수단 민족회의청사에서 민족회의 의장과 담화 및 연회 참가
10.2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5일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현지지도
10.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 故 계훈경(인민예술가,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
10.28, 중통·중방·평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7일 콩고 국회청사에서 국회 상원의장(앙드레 오바미 이두) 및 하원의장(쥬스탱 콤바)과 담화 및 연회 참석
10.28,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28일 '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무트 쿠키크)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10.28,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8일 작별 방문한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와 담화
10.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 현지지도
10.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8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 사이의 여자축구경기 관람
10.29, 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 현지요해
10.29, 중통	리수용(외무상), 10월 29일 신임 주북 폴란드 대사(크지슈토프 체벤)와 담화
10.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지도
10.30, 중통·중방	10월 24일, 김정은의 저작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발표
10.30,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지원한 일꾼-근로자들(박성옥, 상업성 산하단위 지배인)에게 「감사」 전달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